



DAISHIN START

* START=STrategic Analysis and Refreshing Thoughts



Technical Analyst 김영일
ampm01@daishin.com

Strategist 이경민
kmlee337@daishin.com

Global Market Analyst 성연주
cyanzhou@daishin.com

Economist 이하연
Hylee1107@daishin.com

[주간전망] 지수는 박스권. 업종은 IT가전, 화학

주간증시 전망 ▶ 4p 참고

이번주 KOSPI 박스권 예상. 중국 경제지표 개선, 실적 기대에 KOSPI 하방경직성 강화, 반등시도 가능

하지만, 엔화 강세 여파, 미국 실적 불확실성, 소수 업종에 국한된 KOSPI 이익개선세 영향으로 KOSPI 반등폭, 탄력 제한적. 24개 업종 중 7개 업종만이 분기,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 개선세 뚜렷

본격적인 실적시즌을 앞두고 실적 개선 / 턴어라운드 기대주 중심의 트레이딩 전략 강화
다만, 간간해진 투자자들을 감안해 향후 실적과 가격메리트를 함께 고려한 업종 선택 필수
1분기, 2분기, 연간 영업이익 개선세 + 가격메리트 업종 = 화학, IT가전

증시일정 ▶ 2p

FMT ▶ 14p

中國周刊 ▶ 16p

PVLT 주간 업종 선호도 ▶ 18p

Market Data Snap Shot ▶ 22p

Chart Alarm ▶ 27p

8일 KOSPI는 기관의 매도세에 0.09% 하락한 1,972.05에 거래 마감

매매 및 자금동향 ▶ 33p

2016년 04월 11일 월요일

KOSPI

1972.05 ▼-1.84 (-0.09%)

	4/06	4/07	4/08
종가	1971.32	1973.89	1972.05
등락	8.58	2.57	-1.84
등락폭(%)	0.44	0.13	-0.09
거래량(백만주)	355	432	399
거래대금(십억원)	4,478	4,494	4,321
시가총액(십억원)	1,208,161	1,209,783	1,208,644

주: 거래량, 거래대금, 시가총액은 보통주 기준으로 표시

KOSDAQ

697.1 ▼-0.03 (0.00%)

	4/06	4/07	4/08
종가	694.03	697.13	697.10
등락	-1.67	3.10	-0.03
등락폭(%)	-0.24	0.45	0.00
거래량(백만주)	643	690	631
거래대금(십억원)	3,525	3,848	3,449

주: 거래량, 거래대금, 시가총액은 보통주 기준으로 표시

주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4 美 2월 내구재 주문 확정 (전기:-2.8%, 발표:-3.0%) 중국/홍콩 증시 휴장(청명절) 대만 증시 휴장(청명절)	5 美 3월 ISM 비제조업지수 (전기:53.4, 발표:54.5) EZ 2월 소매판매 (전기:2.0%, 발표:2.4%) EZ 3월 마켓 서비스업 PMI 확정 (전기:54.0, 발표:53.1) 대만 증시 휴장(청명절)	6 獨 2월 산업생산 (전기:2.2%, 발표:1.3%) 中 3월 Caixin 서비스업 PMI (전기:51.2, 발표:52.2)	7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中 3월 외환보유고 (전기:\$3202.3b, 발표:\$3212.6b)	8 美 2월 도매재고 (전기:0.3%, 예상:-0.2%) 中 3월 외국인직접투자 CNY (전기:1.8%, 예상:2.4%) 日 3월 소비자자기대지수 (전기:40.1, 예상:40.4)
11 中 3월 CPI (전기:2.3%, 예상:2.4%) 中 3월 PPI (전기:-4.9%, 예상:-4.6%) 中 3월 사회융자총액 CNY(10~15 일) (전기:780.2b, 예상:1400.0b) 中 3월 M2(10~15 일) (전기:13.3%, 예상:13.5%)	12 獨 3월 CPI 확정 (전기:0.3%, 예상:0.3%) 韓 3월 수출물가지수 (전기:-2.0%, 예상:--) 韓 3월 수입물가지수 (전기:-7.4%, 예상:--)	13 美 3월 소매판매 (전기:-0.1%, 예상:0.1%) 美 2월 기업재고 (전기:0.1%, 예상:0.1%) 中 3월 수출 (전기:-25.4%, 예상:10.0%) 中 3월 수입 (전기:-13.8%, 예상:-10.1%) 美 베이저북 공개	14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美 3월 CPI (전기:-0.2%, 예상:0.2%) 美 3월 CPI (식품에너지제외) (전기:0.3%, 예상:0.2%) EZ 3월 CPI 확정 (전기:-0.1%, 예상:-0.1%)	15 美 3월 산업생산 (전기:-0.5%, 예상:-0.1%) 美 4월 미시간소비자신뢰 잠정 (전기:91.0, 예상:92.0) 中 1Q GDP (전기:6.8%, 예상:6.7%) 中 3월 산업생산 (전기:--, 예상:6.0%) 中 3월 소매판매 (전기:--, 예상:10.4%)
18 美 4월 NAHB 주택시장지수 (전기:58.0, 예상:--) 韓 2월 M2 (전기:1.1%, 예상:--)	19 美 3월 주택착공건수 (전기:5.2%, 예상:--) 美 3월 건축허가 (전기:-3.1%, 예상:--) EZ 4월 ZEW 서베이 예상 (전기:10.6, 예상:--) 韓 금통위	20 美 3월 기준주택매매 (전기:5.08m, 예상:--) 日 3월 수출 (전기:-4.0%, 예상:--) 日 3월 수입 (전기:-14.2%, 예상:--)	21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美 2월 FHFA 주택가격지수 (전기:0.5%, 예상:--) EZ 4월 소비자자기대지수 예상 (전기:-9.7, 예상:--) ECB 통화정책회의	22 美 4월 마켓 PMI 제조업 (전기:51.5, 예상:--) EZ 4월 마켓 PMI 제조업 잠정 (전기:51.6, 예상:--) EZ 4월 마켓 PMI 서비스업 잠정 (전기:53.1, 예상:--) 日 4월 닛케이 PMI 제조업 잠정 (전기:49.1, 예상:--) EZ 재무장관 회의 EU 재무장관 회의 (23 일)
25 美 3월 신규주택매매 (전기:2.0%, 예상:--) 獨 4월 IFO 기업환경 (전기:106.7, 예상:--)	26 美 3월 내구재주문 잠정 (전기:-3.0%, 예상:--) 美 2월 S&P/CS 20 개 도시 SA (전기:0.8%, 예상:--) 美 4월 소비자자기대지수 (전기:96.2, 예상:--) 韓 1Q GDP 잠정 (전기:3.1%, 예상:--) 美 FOMC (26~27 일)	27 美 3월 미결제주택매매 (전기:3.5%, 예상:--) 獨 4월 Gfk 소비자자기대지수 (전기:9.4, 예상:--) 韓 4월 소비자심리지수 (전기:100, 예상:--) 美 FOMC (26~27 일) 日 금정위 (27~28 일)	28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美 1Q GDP (전기:1.4%, 예상:--) 美 1Q 개인소비 예상 (전기:2.4%, 예상:--) EZ 4월 소비자자기대지수 확정 (전기:--, 예상:--) 日 4월 CPI (선진품제외) (전기:-0.3%, 예상:--) 日 금정위 (27~28 일)	29 美 3월 개인소득 (전기:0.2%, 예상:--) 美 3월 PCE Core (MoM) (전기:0.1%, 예상:--) 美 4월 미시간소비자신뢰 확정 (전기:--, 예상:--) EZ 1Q GDP SA 예상 (전기:1.6%, 예상:--) EZ 4월 CPI (전기:--, 예상:--)
2 韓 4월 수출(1 일) (전기:-8.2%, 예상:--) 韓 4월 수입 (1 일) (전기:-13.8%, 예상:--) 美 4월 ISM 제조업 (전기:51.8, 예상:--) EZ 4월 마켓 PMI 제조업 확정 (전기:--, 예상:--) 日 4월 닛케이 제조업 PMI 확정 (전기:--, 예상:--)	3 中 4월 차이신 PMI 제조업 (전기:49.7, 예상:--) 韓 4월 CPI (전기:1.0%, 예상:--)	4 美 4월 ADP 취업자 변동 (전기:200k, 예상:--) 美 4월 내구재 주문 확정 (전기:--, 예상:--) EZ 4월 마켓 PMI 서비스업 확정 (전기:--, 예상:--) EZ 4월 소매판매 (전기:2.4%, 예상:--)	5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中 4월 차이신 PMI 서비스업 (전기:52.2, 예상:--) OECD 경제전망 보고서 英 지방선거	6 美 4월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 (전기:215k, 예상:--) 美 4월 시간당 평균 임금 (전기:0.3%, 예상:--) 中 4월 외환보유고 (7 일) (전기:\$3212.6b, 예상:--) 中 4월 수출 (전기:--, 예상:--) 中 4월 수입 (전기:--,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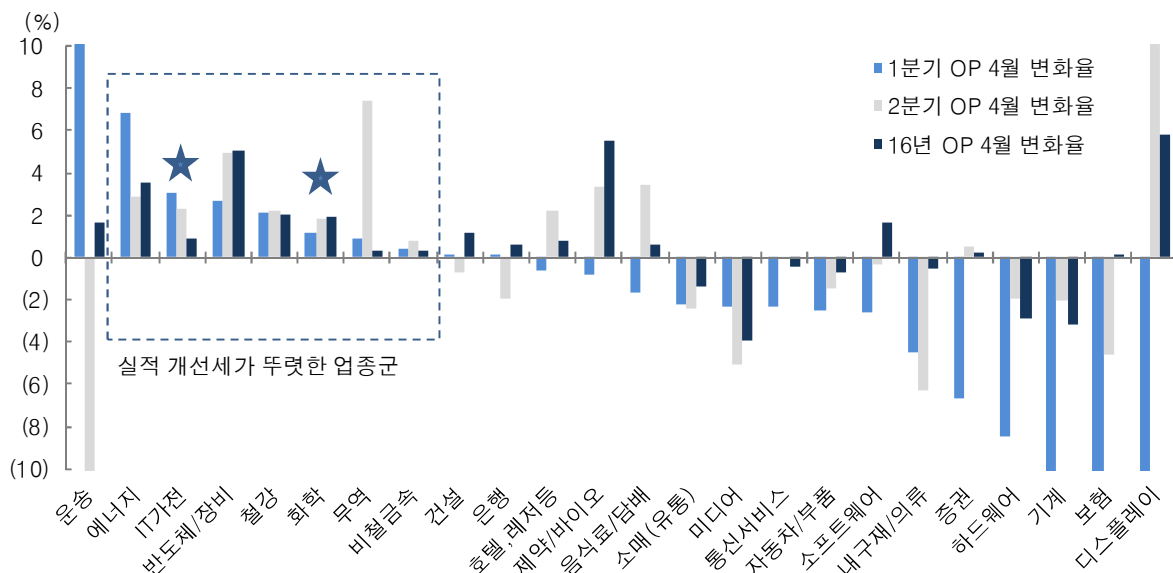
주: 날짜는 해당국의 Local Time 기준이며 예상치는 Bloomberg 기준, K는 천, M은 백만을 의미
미국 지표인 경우 전기대비, 다른 국가들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데이터를 나타냄

KOSPI 전망

- 유가 급등, 글로벌 증시 반등으로 코스피 기술적 반등 가능. 그러나 정책효과에 대한 기대를 낮춰야 할 시점. 정책 신뢰가 가장 강했던 일본에서 정책 실망이 발생. 추가 정책이 나오더라도 엔화 약세가 과거처럼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정책효과 약화는 2~3분기 대표적인 조정요인으로 예상했던 변수. 정책 신뢰 약화가 예상보다 빨리 나타났고, 이에 따라 엔케리 청산등 글로벌 유동성 위축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1분기 코스피 상승 가능성 낮아져
- 반등시 성장주 비중 축소, 수출주(IT, 자동차)와 가치주(Low-Vol)로 포트폴리오 압축

Today's Key Chart

24개 업종 중 7개 업종만이 실적 개선세 뚜렷. 이들 중에서도 옥석가리기 필수



- 이번주 KOSPI 박스권 예상. 중국 경제지표 개선, 실적 기대에 KOSPI 하방경직성 강화, 반등시도 가능
- 하지만, 엔화 강세 여파, 미국 실적 불확실성, 소수 업종에 국한된 KOSPI 이익개선세 영향으로 KOSPI 반등폭, 탄력 제한적. 24개 업종 중 7개 업종만이 분기,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 개선세 뚜렷
- 본격적인 실적시즌을 앞두고 실적 개선 / 턴어라운드 기대주 중심의 트레이딩 전략 강화
- 다만, 간간해진 투자자들을 감안해 향후 실적과 가격메리트를 함께 고려한 업종 선택 필수
- 1분기, 2분기, 연간 영업이익 개선세 + 가격메리트 업종 = 화학, IT가전

주간 증시 전망

[주간전망] 지수는 박스권. 업종은 IT가전, 화학

Strategist 이경민 kmlee337@daishin.com

※ [주간전망] 안도와 경제의 공존. 지수는 박스권, 업종/종목은 차별화

이번주는 중국 경제지표 개선, 실적 기대에 KOSPI 하방경직성 강화, 반등시도를 예상한다. 하지만, 시장보다는 업종/종목별 대응전략에 집중할 때이다.

PMI지표에 이은 중국 실물 경제지표 개선세는 중국 경기 턴어라운드 기대를 자극할 수 있다. KOSPI 추가하락을 제한하고, 반등시도에 힘을 실어줄 변수이다. 다만,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흔들리는 가운데 실적 변수가 가세하고 있어 KOSPI 반등탄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글로벌 전반에 실적 전망이 밝지 못하고, KOSPI도 일부 소재, 산업재, IT 중심의 이익 개선세가 전개 중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위험자산 선호심리 후퇴. 트리거는 엔화 강세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이상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안도렐리 정점 통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새로운 모멘텀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새로운 변수가 가세했다. 바로 엔화 강세이다. 그동안 글로벌 금융시장 안도렐리의 한 축인 글로벌 정책 기대, 공조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안전자산 선호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변화라 하겠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균열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 삼성전자 실적 서프라이즈 Vs. 주가 약세. 깐깐해지는 투자자들

글로벌 금융시장 변화의 조짐 속에 국내 투자자들도 깐깐한 검증과정을 투자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과거, 현재의 좋은 것보다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지, 대내외 변수대비 가격 메리트가 유효한지 여부가 주가 흐름을 결정하고 있다.

실적 기대감을 높였던 삼성전자가 서프라이즈한 1분기 실적(6조 6천억원, 예상치 5.7조 원대)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3% 하락하며 125만원마저 하향 이탈했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매출액의 감소, 추세적인 실적 개선 기대가 낮다는 것과 함께 실적대비 가격메리트가 높지 않아 차익실현 심리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 [주간전략] 실적 전망치 개선과 가격메리트의 교집합 : 화학, IT가전

본격적인 실적시즌을 앞두고 실적 개선 / 턴어라운드 기대주 중심의 트레이딩 전략은 유효하다. 다만, 깐깐해진 투자자들을 감안해 향후 실적과 가격메리트를 함께 고려한 옥석가리기, 업종 선택이 필수적이다.

실적 개선 업종 내에서도 단기 가격메리트(4월)가 유효한 업종으로는 반도체/장비, 에너지, 화학, 비철금속, IT가전이 있다. 특히, 화학, IT가전은 연초 이후 변화율 기준으로 실적대비 가격메리트가 높다. 실적 기대감에 따른 탄력적인 주가 반등을 기대한다.

[주간전망] 안도와 경계의 공존. 지수는 박스권, 업종/종목은 차별화

이번주 KOSPI는 중국발 안도, 실적 기대에 하방경직성을 강화해가는 한편, 반등시도를 기대해도 좋을 전망이다.

이번주 중국에서는 물가, 유동성, 수출입, 산업생산, 소매판매 등 다양한 실물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1분기 GDP 성장률(전분기 6.8%, 예상 6.7%)을 제외한 대부분 3월지표들이 전월대비 개선세를 보일 전망이다. 특히, 수출은 큰 폭의 플러스 반전을 예상하고 있고, 유동성 모멘텀, 투자지표들의 개선세가 뚜렷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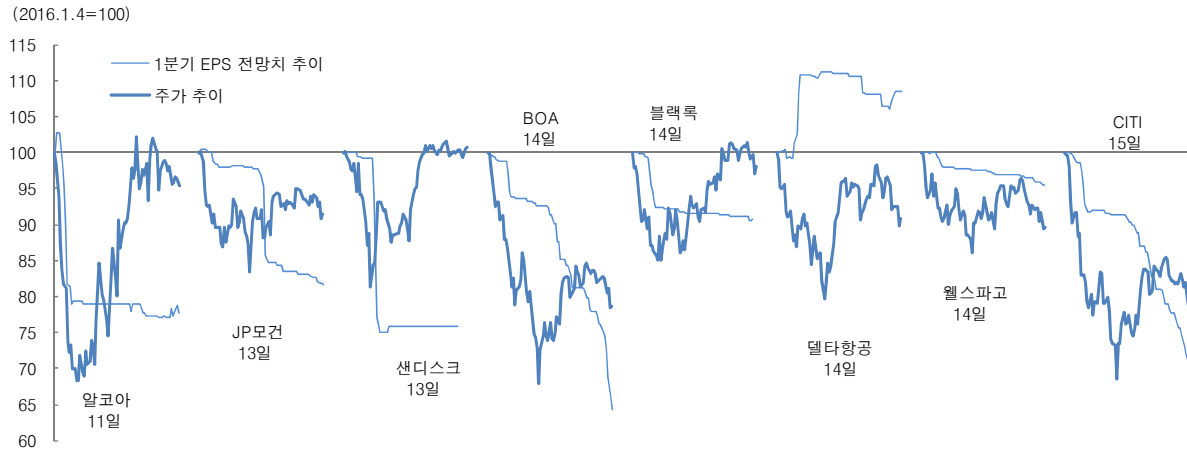
PMI지표에 이은 중국 실물 경제지표 개선세는 중국에 대한 안도, 기대를 자극할 것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안도심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KOSPI 추가하락을 제한하고, 반등시도에 힘을 실어줄 변수가 될 것이다.

그림 1. 글로벌 주요증시 일정

일자	경제지표	기타
11	中 3월 CPI (전기:2.3%, 예상:2.4%)	
	中 3월 신규대출 CNY (10~15일) (전기:726.6b, 예상:1100.0b)	
	中 3월 사회용자총액 CNY (10~15일) (전기:780.2b, 예상:1400.0b)	
	中 3월 M2(10~15일) (전기:13.3%, 예상:13.5%)	
12	中 3월 외국인직접투자 CNY (8~12일) (전기:1.8%, 예상:2.4%)	
	獨 3월 CPI 확정 (전기:0.3%, 예상:0.3%)	
	韓 3월 수출 물가지수 (전기:-2.0%, 예상:—)	
	韓 3월 수입 물가지수 (전기:-7.4%, 예상:—)	
13	美 3월 소매판매 (전기:-0.1%, 예상:0.1%)	
	美 2월 기업재고 (전기:0.1%, 예상:0.1%)	
	EZ 2월 산업생산 (전기:2.8%, 예상:1.2%)	
	中 3월 수출 (전기:-25.4%, 예상:10.0%)	美 연준 베이지북 공개
	中 3월 수입 (전기:-13.8%, 예상:-10.0%)	韓 증시 휴장(총선)
	中 3월 무역수지 CNY (전기:209.5b, 예상: 203.7b)	
	日 3월 M2 (전기:3.1%, 예상:3.1%)	
	日 3월 PPI (전기:-3.4%, 예상:-3.5%)	
14	美 4/9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전기:267k, 예상:—)	
	美 3월 CPI (전기:-0.2%, 예상:0.2%)	韓 옵션 만기일
	美 3월 CPI(식품에너지제외) (전기:0.3%, 예상:0.2%)	
	EZ 3월 CPI 확정 (전기:1.0%, 예상:-0.1%)	
15	美 3월 산업생산 (전기:-0.5%, 예상:-0.1%)	
	美 4월 미시간소비자신뢰 잠정 (전기:91.0, 예상:92.0)	
	中 3월 산업생산 (전기:—, 예상:6.0%)	IMF-World Bank 총회(15~17일)
	中 3월 소매판매 (전기:—, 예상:10.4%)	OPEC 산유국 회의(17일)
	中 3월 고정자산투자(농촌제외) (전기:10.2%, 예상:10.4%)	
	中 1Q GDP (전기:6.8%, 예상:6.7%)	
	日 2월 산업생산 확정 (전기:-1.5%, 예상:—)	

주: 날짜는 해당국의 local 기준이며 예상치는 Bloomberg 기준, k는 천, m은 백만을 의미 / 미국 지표인 경우 전기대비, 다른 국가들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데이터를 나타냄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이번주 실적발표 예정 미국기업들의 주가와 EPS 전망치 추이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다만, 글로벌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흔들리는 가운데, 본격적인 글로벌 실적시즌 돌입이라는 새로운 변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번주 미국은 11일 알코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적시즌에 돌입한다(13일 JP모건, 샌디스크, 14일 BOA, 블랙록, 델타항공, 웰스파고, 15일 찰스슈왈츠, CITI 실적발표 예정)

S&P글로벌마켓인텔리전스에 따르면 S&P500 상장 기업들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7.9%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번주 실적발표가 예정된 기업들은 대부분 금융기업들로 큰 폭으로 실적 하향 조정세가 진행 중이다. 기대치가 낮은 만큼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기대하는 시각도 있지만, 실적과 주가 간의 괴리를 보면 실적 서프라이즈가 아닌 이상 주가의 상승모멘텀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KOSPI도 일부 소재, 산업재, IT 중심의 이익 개선세가 전개 중이라는 한계가 있다.

지난주 KOSPI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1.21% 하향조정되었다. 운송, 에너지, IT가전, 반도체, 철강, 화학, 비철금속 등 소재, 산업재, IT의 실적 개선세는 꾸준했지만, 기계, 자동차/부품, 내구재/의류, 미디어, 소매(유통), 음식료/담배, 증권, 보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의 감익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주 KOSPI는 중국발 안도, 실적 기대에 KOSPI 하방경직성 강화, 반등시도를 기대할 수 있으나 시장보다는 업종/종목별 대응전략에 집중할 때라는 판단이다.

실적 시즌이 다가올수록 슬림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위험자산 선호심리 후퇴. 트리거는 엔화 강세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이상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안도렐리 정점 통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추가적이고 새로운 모멘텀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새로운 변수가 가세하고 있다.

바로 엔화 강세이다.

아베총리의 환율시장 개입에 대해 회의적인 발언이 변수가 되기는 했지만, 110엔마저 하향이탈하며 108엔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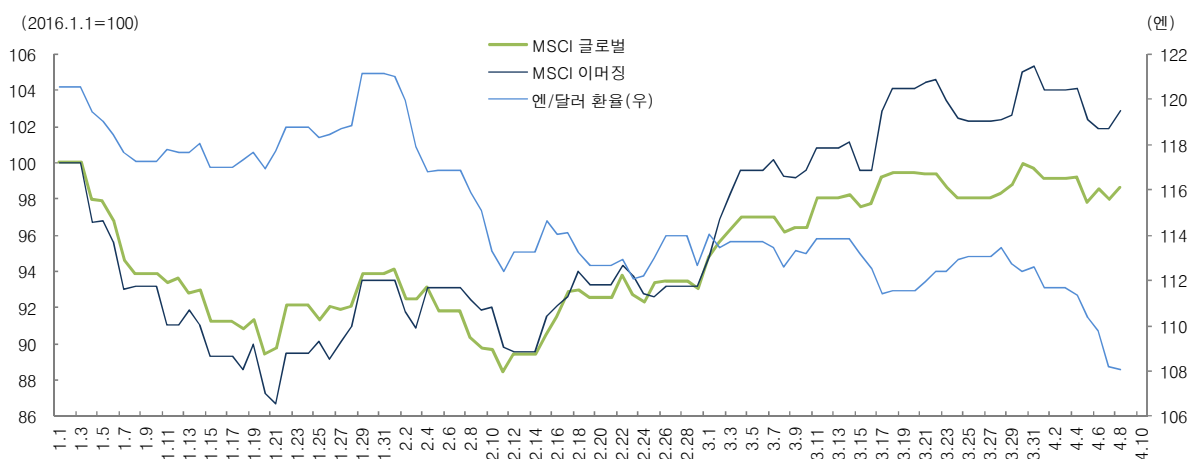
이처럼 가파른 엔화강세는 1) 글로벌 통화정책 신뢰도 약화, 2) 안전자산 선호심리 강화로 읽을 수 있는 변화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3월 안도렐리를 이어갈 수 있었던 데에는 ECB, FOMC발 안도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BOJ 추가 양적완화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가파른 엔화 강세는 낮은 일본 정책에 대한 신뢰도, 이를 넘어선 실망감이 녹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ECB, FOMC발 안도감, 추가적인 기대감을 디스카운트하는 변수이다. 정책 공백기에 돌입하는 가운데 BOJ가 다시 한 번 글로벌 정책에 대한 불신을 자극할 소지가 크다.

지난주 시장의 기대를 충족한 3월 FOMC회의록 공개, 옐런의 비둘기파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가 약세를 보였다는 점도 정책 기대감이 약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3. 엔화 강세, FOMC 발 호재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 하락반전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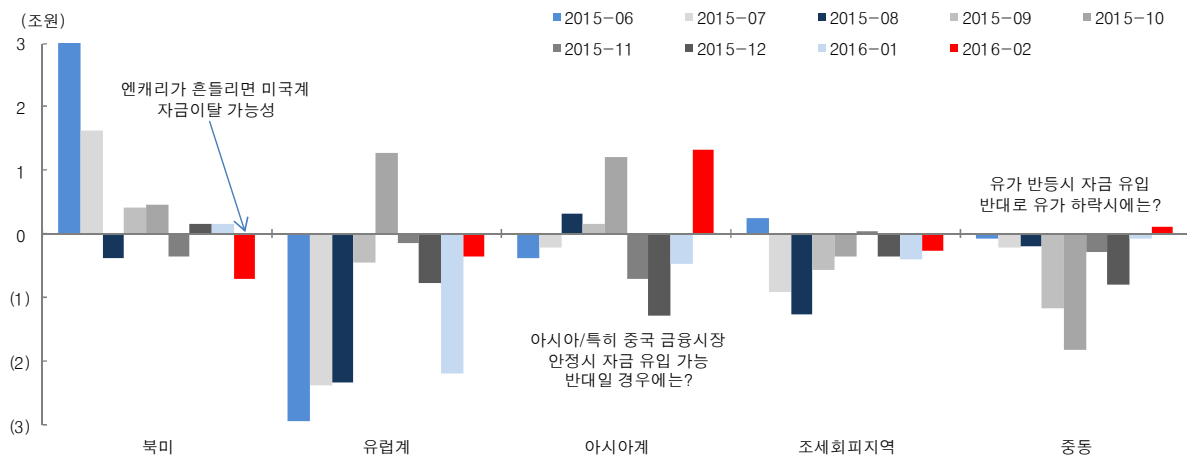
한편, 엔화 강세는 안전자산 선호심리를 자극하면서 글로벌 유동성의 이동을 제한한다.

특히, 엔 약세구간에서 글로벌 위험자산에 투자했던 일본 자금이 회수될 가능성을 높인다. 2월에 경험했던 바와 같이 엔캐리 트레이드의 회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경우 KOSPI 수급에도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2월 국적별 매매동향을 보면, 미국계 자금이 8,000억원 이상 유출되었다. 2014년 2월 이후 최대규모였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흔들리면 미국계 자금도 KOSPI 시장에서 이탈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엔캐리 트레이드 이탈의 나비효과, 전염효과가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 2월 국적별 매매동향. 눈에 띄는 것은 미국계 자금의 이탈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삼성전자 실적 서프라이즈 Vs. 주가 약세. 간간해지는 투자자들

글로벌 금융시장 변화 속에 국내 투자자들도 간간한 검증과정을 거치고 있다.

과거, 현재의 좋은 것보다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지 여부, 대내외 변수대비 가격 메리트가 유효한지 여부가 주가 흐름을 결정하고 있다.

지난주부터 실적 기대감을 높였던 삼성전자가 서프라이즈한 1분기 실적(6조 6천억원, 예상치 5.7조원대)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안 3% 하락하며 125만원마저 하향 이탈했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매출액의 감소, 추세적인 실적 개선 기대가 낮다는 것과 함께 실적대비 가격메리트가 높지 않아 차익실현 심리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일단, 삼성전자의 실적서프라이즈를 계기로 KOSPI의 밸류부담은 소폭 줄어들었다.

12개월 Fwd EPS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KOSPI 12개월 Fwd PER은 10.8배로 하락했고, 기존의 밴드 상단인 PER 11배는 2,010p까지 올라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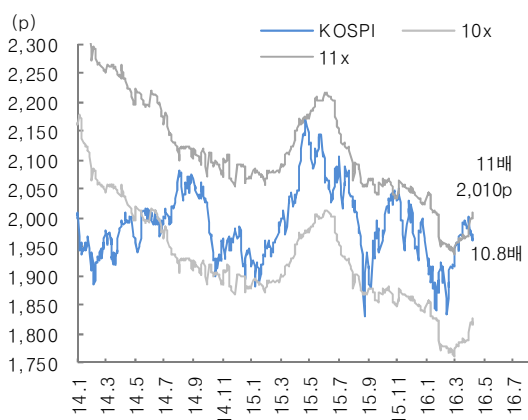
삼성전자의 나비효과가 단기적인 KOSPI의 추가적인 반등 시도, KOSPI 2,000선 회복 시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와 함께 실적에 대한 주가 민감도를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KOSPI는 1,960선을 장 중 하향 이탈하기도 했다. 하지만, KOSPI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업종, 단기 가격메리트가 유효한 업종들 중심으로 반등 시도에 나섰고, 1,970선을 회복했다.

KOSPI 1,960선은 120일선이 위치한 지수대이다. 펀더멘털, 경기선으로 불리는데, 동 지수대를 지켜낼 수 있었던 데에는 삼성전자의 실적서프라이즈, 이로 인한 실적 기대감 회복이 일정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삼성전자 실적 서프라이즈에 힘입어 KOSPI 12개월 Fwd PER 10.8배로 하락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펀더멘털, 경기선(120일선, KOSPI 1,960p)을 지켜낸 KOSPI



자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러나 삼성전자 주가 하락은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매출 규모를 늘리지 못한데 따른 우려가 반영되었고(1분기 매출 49조원, 전 분기(53조 3천200억원)대비 8.10% 감소), 향후 추세적인 실적 개선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실적 발표 직후 연이틀 1% 넘는 급락세를 이어갔다는 점은 실적대비 가격메리트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1분기, 2분기,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와 주가의 연초 이후 추이를 보면, 10 ~ 15%p 주가가 높았다. 실적 기대감이 선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

주가와 실적 간의 괴리율은 기관의 차익매물 강화로 이어졌다. 4월 6일부터 8일까지 국내 기관은 일평균 1,000억원 이상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다.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의 매수강도도 빠르게 둔화되는 양상이다.

실적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매력도가 높지 않은 경우 투자자들은 차익실현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7. 삼성전자 주가와 실적 간의 괴리율 여전히 큰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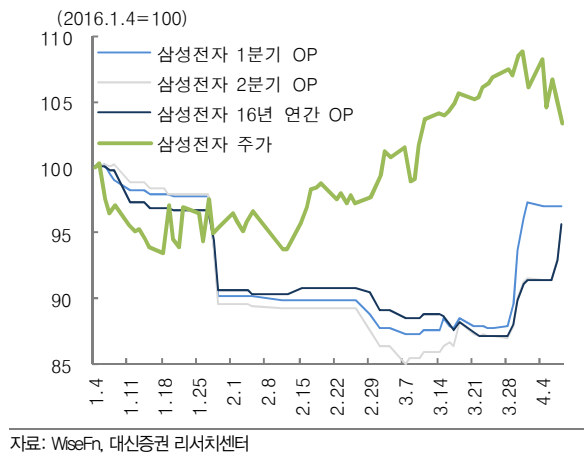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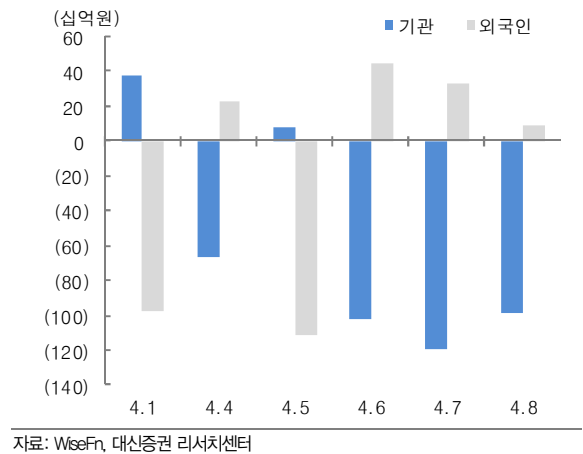


그림 8. 기관 중심의 차익매물 집중



[주간전략] 실적 전망치 개선과 가격메리트의 교집합 : 화학, IT가전

본격적인 프리어닝 시즌 돌입과 함께 삼성전자의 실적 서프라이즈는 실적 개선 / 턴어라운드 기대주들에 대한 트레이딩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있다.

여전히 소수 업종에 실적 개선세가 집중되고 있고, 이로 인해 매기 확산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은 KOSPI의 반등탄력을 제한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실적 개선 업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업종별 대응전략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삼성전자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간간해진 투자자들의 시각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현재,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와 함께 향후 실적과 가격메리트를 함께 고려한 업종 선택이 필수적이다.

1차적으로 실적 개선 업종을 선별해 봤다. 24개 업종 중 1분기, 2분기,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4월에도 꾸준히 개선되는 업종은 단 7개 업종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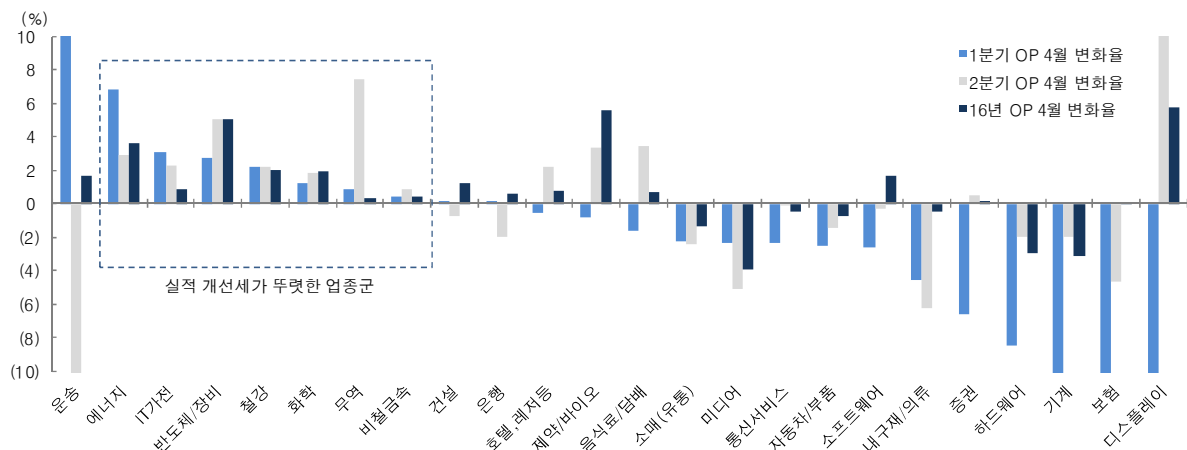
에너지, IT가전, 반도체/장비, 철강, 화학, 무역, 비철금속

이제 고려해야 할 부분은 가격이다.

실적대비 업종지수 수익률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최근 주가 하락의 여파로 많은 업종들의 단기 가격메리트가 되살아난 것을 확인했다.

그림 9. 1분기, 2분기,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 개선세가 뚜렷한 업종 : 에너지, IT가전, 반도체/장비, 철강, 화학, 무역, 비철금속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반도체/장비, 에너지, 화학, 비철금속, IT가전 업종이 단기 가격메리트가 되살아나고 있다. 철강, 무역은 여전히 중단기 가격부담이 남아있다.

반도체/장비, 에너지, 화학, 비철금속, IT가전 중 최선호 업종으로는 화학, IT가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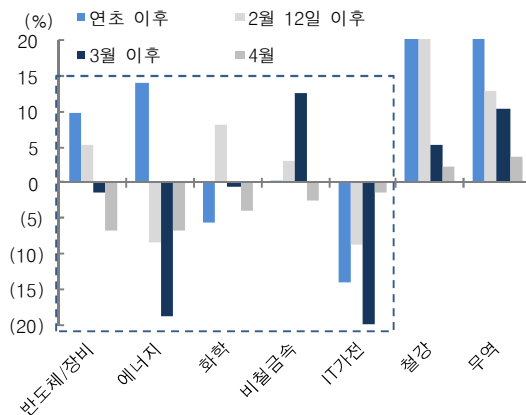
연초 이후 실적 개선세가 꾸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가는 실적 개선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 영역에 위치했다. 비철금속은 빠르게 가격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반면, 에너지, 반도체/장비는 가격부담이 큰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이번주에는 화학, IT가전 업종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는 가운데 비철금속은 추가 조정시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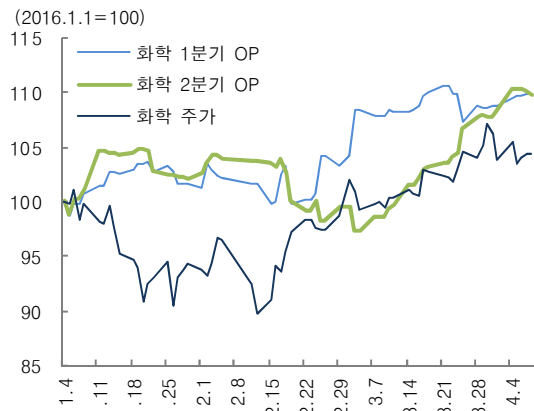
화학, IT 업종 모두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기관 매도압력에 흔들리고 있지만, 실적시즌이 가까워올수록 가격메리트와 실적 기대감에 기관 매도 압력이 완화될 경우 언제든지 탄력적인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림 10. 구간별 1분기 영업이익 대비 주가 변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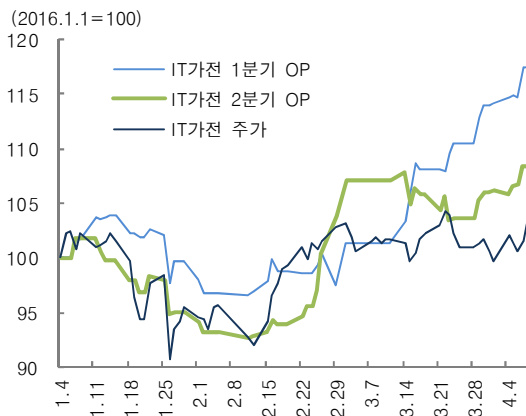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1. 화학 영업이익의 전망치와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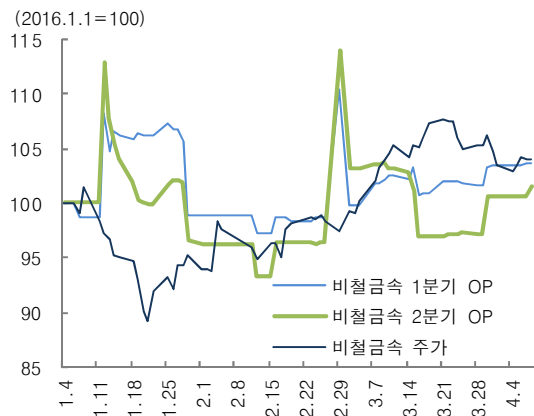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2. IT가전영업이익의 전망치와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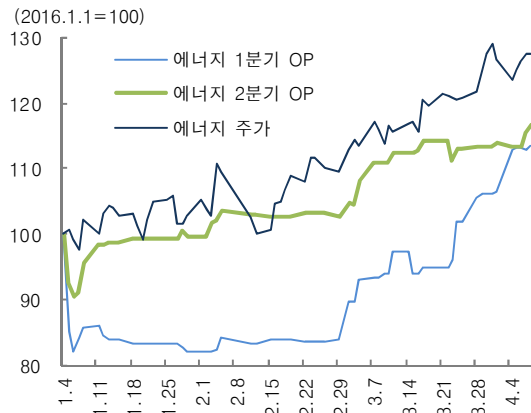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3. 비철금속 영업이익의 전망치와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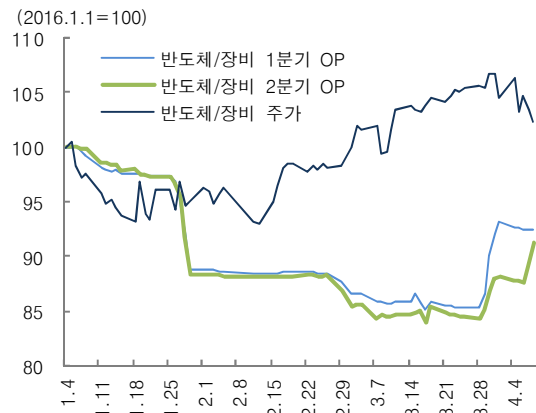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4. 에너지 영업이익의 전망치와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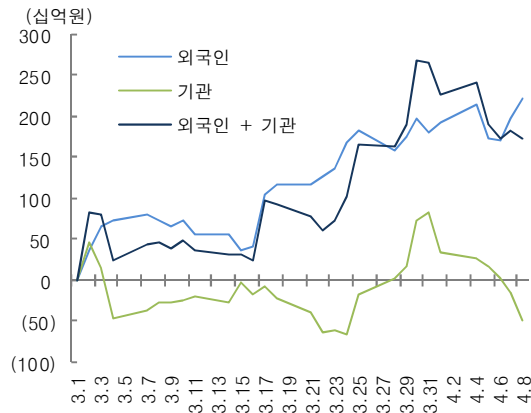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5. 반도체/장비 영업이익의 전망치와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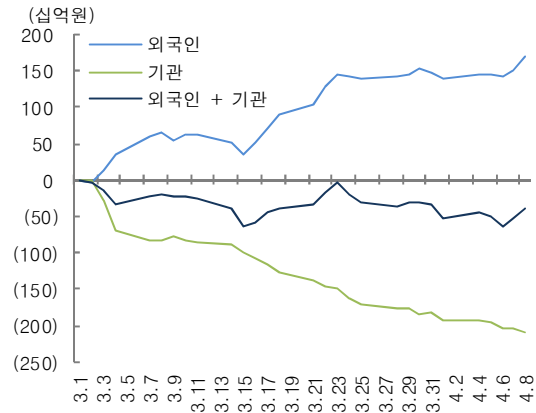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6. 화학업종 외국인/기관 누적 순매수 추이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7. IT 가전 업종 외국인/기관 누적 순매수 추이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Financial Market Trend

실적, 가격변수에 민감해진 KOSPI. 업종별 차별화 심화

Strategist 이경민 kmlee337@daishin.com

전주 동향(증가기준): 1,962.74~1,978.97pt

금주 전망: 1,960~2,000pt.

- 4월 1일 이후 8일까지 KOSPI 지수는 0.08% 하락, 1,972.05p로 마감. 3월 FOMC회의록 공개, 앨런 연준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 삼성전자 실적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KOSPI는 1,970선에서 등락 반복. 원/달러 환율이 1,150원선에서 하방경직성을 보이고, 실적시즌이 가까워지면서 외국인/기관 차익 실현 심리가 커졌기 때문. 실적과 가격메리트에 따른 업종별 차별화 심화도 KOSPI 발목을 잡는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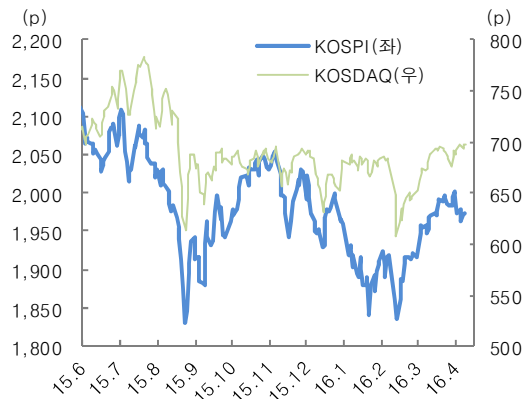
- 4월 1일 이후 8일까지 KOSDAQ 지수는 0.93% 상승, 697.10p로 마감. KOSPI 약세에도 불구하고 가격메리트를 바탕으로 한 반등 시도 이어지고 있음. 규모는 크지 않지만,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국내 기관 연속 순매도가 찾아들면서 상대적 강세. 다만, KOSDAQ 700p에 근접하면서 추가반등 제한적

- KOSPI 내 업종별 등락에서는 가격메리트와 단기 모멘텀(실적, 상품가격)이 양호한 업종들이 강세 기록. 철강금속, 의약품, 운수창고, 음식료, 기계, 종이 목재, 서비스 업종이 1% 이상 상승 마감. 반면, 금융주와 수출주 약세. 은행 업종이 2.04% 하락한데 이어 전기전자 -1.72%, 운수장비 -1.70% 약세 마감. 트로이카 업종의 하락세가 KOSPI의 발목을 잡음. 환율 변동성 확대와 프리어닝 시즌이 맞물리면서 업종/종목별 차별화 심화되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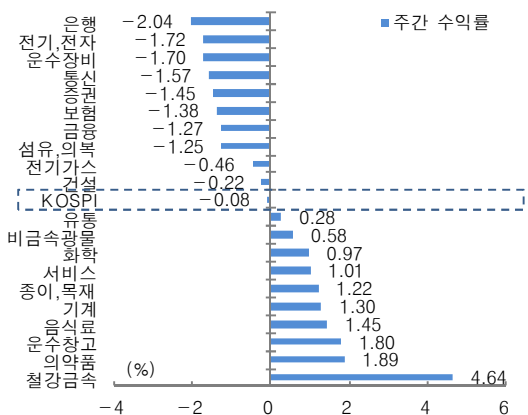
- 외국인 한 주만에 순매수 전환. 주 후반 순매수가 유입되었지만, 업종, 종목별 차별화 심화. 프리어닝 시즌 돌입에 따라 밸류에이션 부담이 가중되는 업종 중심으로 차익매물 출회. 한편, 투신의 순매도 행진으로 주간 기관 순매도규모 1.16조원.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자금 유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선물베이시스 축소로 인한 금융투자 매도 가세

- KOSPI 1,960선 단기 지지력 기대. 외국인, 기관 매매공방 속에 실적/가격메리트에 따른 업종/종목별 차별화 예상. 트레이딩 관점 유효. 옥석가리기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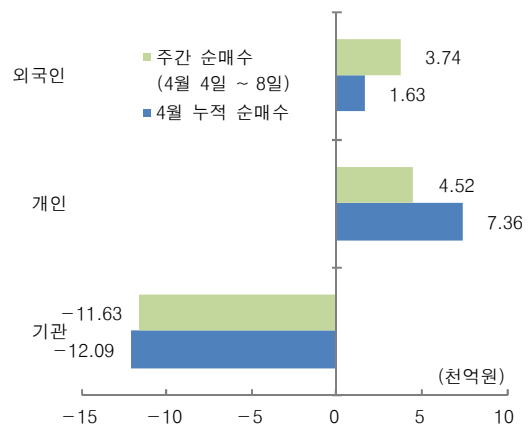
KOSPI 및 KOSDAQ 지수 추이



주간 업종별 수익률(3월 25일 이후)



주간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자료: FnDataGuide,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원/달러 환율

Economist 이하연 hylee1107@daishin.com

전주 동향(일평균기준): 1,146.1~1,156.1원

금주 전망: 1,140~1,180원

지난 주 원/달러 환율은 1,150~1,155원대에서 등락을 반복. 3월 FOMC 의사록에서 4월 금리인상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는 부분에서 시장은 다소 놀람. 이에 달러가 반등 시도했으나 여전히 비둘기파적인 시장의 분위기와 본격적인 실적시즌에 약세 지속. 달러 약세지속에도 원/달러 환율은 1,150원대에서 지지력을 보임. FOMC의 의사록의 비둘기파적인 내용 등 달러의 약세에도 엔화의 강세가 지속되며 원/달러 환율은 박스권에서 등락

금주 원/달러 환율은 위험자산 선호가 약화되며 완만한 상승 흐름이 지속될 전망. 연준 의사록 발표 후 시장이 비둘기파적으로 돌아섬. 실적시즌 돌입에 따라 위험자산(주식) 회피심리는 달러 약세 지속의 요인. 중국의 실물지표가 대거 발표 예정. 중국지표의 결과에 따라 원/달러 환율의 변동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긍정적인 예상치에 부합한다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 원/달러 환율 하락반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국고채 수익률(3년물)

Fixed Income Strategist 박혁수 bondpark@daish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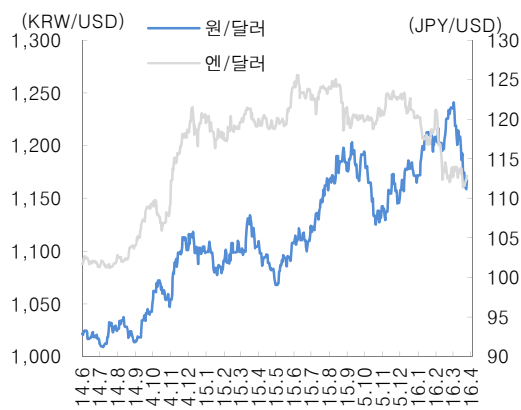
전주 동향(종가기준): 1.440~1.468%

금주 전망: 1.45~1.55%

지난주 채권시장은 시장흐름을 견인할 모멘텀 부재로 변동성이 축소된 가운데 5년이하 약세, 10년이상 강세를 보이는 혼조세. 레벨부담과 KDI의 경기판단 개선 등이 약세 재료로 작용한 가운데 글로벌 리스크 오프 현상이 금리 상승을 제한. 레벨부담, KTB3선물시장에서 외인 매도우위, 정책당국자의 경기판단 개선이 약세 재료로, 도비쉬했던 3월 FOMC의사록, 글로벌 성장둔화 우려에 따른 리스크 오프 현상이 금리 상승을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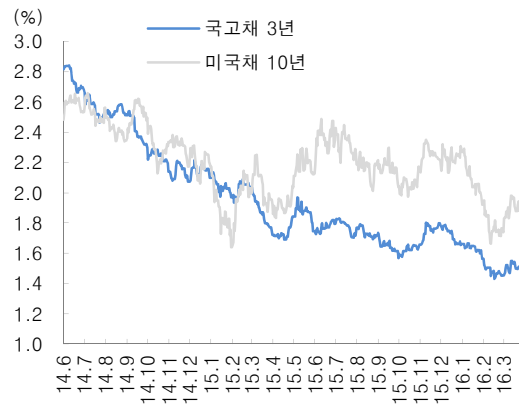
호재 선반영으로 금리 수준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이지만, 상승을 견인할 만한 재료가 마땅치 않아 변동성이 축소되고 있음. 금주 채권시장은 다음주 금통위를 앞두고 관망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국내에서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 대외상황에 연동한 천수답장세가 예상. 특히, 미국에서는 연준위원들의 연설이 많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이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그림 1. 원/달러 및 엔/달러 환율 추이



자료: FnDataGuide,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한국 및 미국 국고채 금리 추이



자료: FnDataGuide,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中國周刊

Analyst 성연주 cyanzhou@daishin.com

1. Summary

[Preview] 지난주 8일은 대주주 지분 매각 금지령 해제일로 수급 불균형 우려로 상해종합지수 단기 조정 양상을 보이며 3,000P선 붕괴

[Review] 이번주 13일~15일 3월 수출입 및 1/4분기 GDP성장률 등 중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3월 경제지표 호조가 예상되기 때문에 상해종합지수 반등 시도 예상

2. China Weekly Indicator

주간 중국 증시 등락률

주요지수	종가	주간등락폭	주간등락률(%)
상해종합지수	2985.0	-24.6 ▼	-0.8 ▼
심천종합지수	1914.3	12.8 ▲	0.7 ▲
호심300지수	3185.7	-36.2 ▼	-1.1 ▼
차스닥	2229.9	24.6 ▲	1.1 ▲
항셍H지수	8704.8	-138.1 ▼	-1.6 ▼
항셍지수	20370.4	-128.5 ▼	-0.6 ▼

주간 업종 수익률(%)

Best 5	수익률	Worst 5	수익률
전력설비	2.0	증권	-2.9
섬유방직	1.8	은행	-1.6
자동차	1.7	비철금속	-1.2
기초화학	1.5	국방	-1.1
전자기기	1.4	건축	-1.0

Valuation(12m Fwd)

	상해종합지수	항셍 H 지수
16 P/E	10.68	9.49
16 EPS증가율	8.60	7.08
16 ROE	11.55	12.11
16 P/B	1.23	1.15
16 배당수익률	3.11	3.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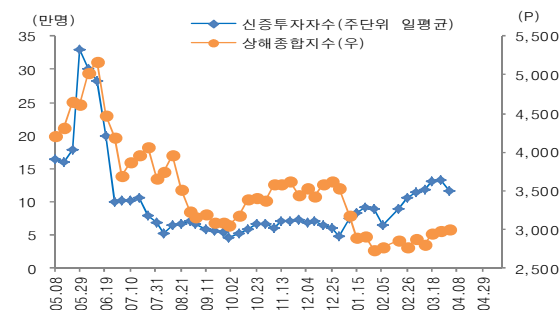
상해종합 주요업종 주간 수익률

	종가	수익률
은행	공상은행 4.3	-0.9 ▼
	건설은행 4.8	-1.7 ▼
	중국은행 3.4	-1.5 ▼
석유	페트로차이나 7.5	-1.8 ▼
화학	시노펙 4.9	-0.6 ▼
	바오산스틸 5.5	3.6 ▲
철강	안강스틸 4.2	2.4 ▲
	무한철강 3.2	5.0 ▲
	중국해운컨테이너 4.8	3.4 ▲
운수	중해발전 6.7	0.8 ▼
	차이나코스코홀딩스 6.1	-0.7 ▼

항셍H 주간 상위 종목

종목	종가	수익률
중국국제항공	6.1	8.4 ▲
차이나텔레콤	4.2	5.0 ▲
중국건설	3.8	4.1 ▲
시노팜	35.3	4.0 ▲
중국교통건설	9.5	2.4 ▲
화능국제전력	6.9	1.5 ▲
만달상업	46.4	1.2 ▲
만과	18.7	0.8 ▲
신화에너지	11.8	0.7 ▲
민생은행	7.1	0.4 ▲
중국중차	7.7	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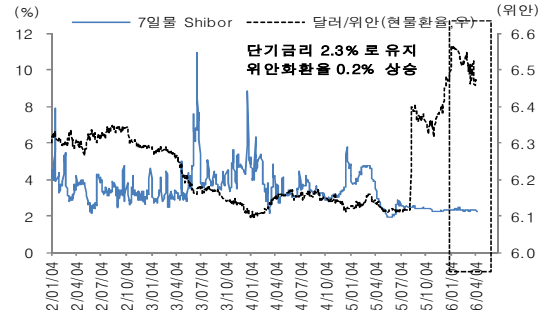
그림 1 신증투자자수 전주대비 11.7% 증가(4월1일 기준)



자료: Wind,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Review

그림 2 지난주 위안화 환율 0.2% 상승



자료: Wind,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 지난 4월 8일은 2015년 7월 8일 실시했던 대주주 지분 축소 금지령 만기일로 증시 수급 우려로 7일~8일 상해 종합지수 단기 조정양상을 보임. 사실 대주주 지분 축소 금지령 만기일은 6개월 기한인 2016년 1월 8일이었으나, 연초 중국 증시 조정폭 확대되면서 3개월 연장(4월 8일)했고, 집중적인 주식 매도를 막기위해 3월내 주식매도 수량을 전체 주식수의 1%이하 제한 및 15일전 사전공고 규정을 명시한바 있음. 따라서 대규모(1조위안 이상)의 증시 자금 이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번 수급 구려는 단기에 그칠 것으로 판단

Preview

- 오는 13일 3월 수출/수입 증가율(yoy) 발표 예정. 수출입 지표 예상치는 각각 10%, -10.1%로, 특히 수출 증가율(yoy)이 플러스 반등 예상. 3월 통계국 PMI지수에서 신수출주변지수도 반등(50% 상회)했고, 3월 투자/소비 지표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수입 증가율(yoy)도 전월대비 상승할 것으로 판단.
- 오는 15일 1/4분기 GDP성장률 및 3월 투자/소비/생산 등 중요 경제지표 발표 예정. 1/4분기 GDP성장률(yoy) 예상치는 6.7%로 전분기(4Q 6.8%)대비 소폭 둔화 예상. 단, 3월 투자/소비/생산 지표 모두 개선될 것으로 예상. 특히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부동산 신규착공면적 증가율 반등 기대감에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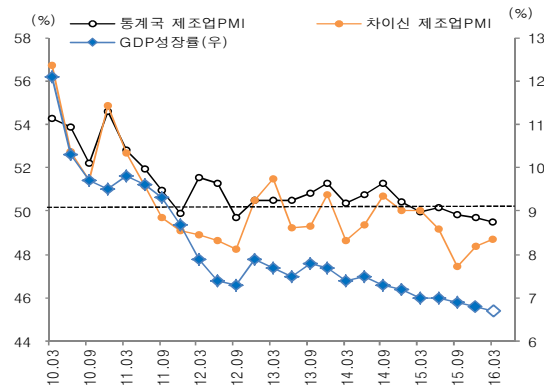
표 1. 3월 중요 경제지표 발표 예정

(단위: %, 억위안)

발표일자	항목	3월예상치	2월	1월	발표일자	항목	3월예상치	2월	12월
4월 11일	CPI/PPI	2.4/-4.6	2.3/-4.9	1.8/-5.3	4월 15일	GDP성장률	6.7		6.9(4Q)
4월 13일	수출/수입	10/-10.1	-25/-14	-11.2/18.8		고정자산투자	10.4	10.2	10
4월 10일	신증대출액	11,000	7,266	25,100	4월 15일	소매판매	10.4	10.2	11.1
~15일	M2	13.5	13.3	14		산업생산	6	5.4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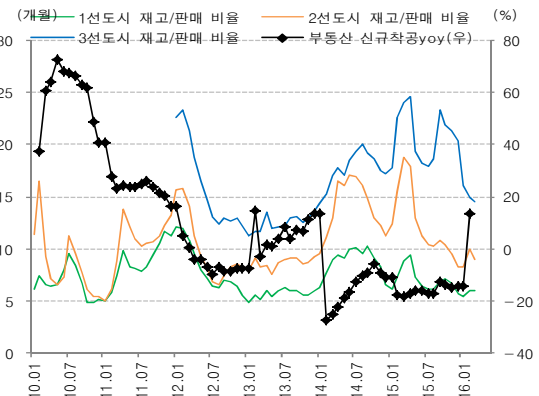
주: Bloomber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1/4분기 GDP 성장률(yoy) 예상치 6.7%



자료: Wind,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3월 부동산 신규착공면적 증가율 상승세 지속 예상 →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반등세 기대



자료: Wind,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PVLT 주간 업종 선호도

Analyst 김영일 ampm01@daishin.com

선호업종 : 비철금속, 기계, 디스플레이 등

PVLT 업종 선호도는 상대성과(Relative Performance), 이익(Valuation), 유동성(Liquidity), 가격(Technical)의 네가지 변수 모멘텀에 따라 0~10점 값을 갖는다.

지난주 선호업종이었던 화학, 보험, 운송등은 평균 1.00% 상승해 0.08% 하락한 KOSPI보다 1.08%p 초과 상승했다.

4월 2주차 PVLT 선호업종은 비철금속, 기계, 디스플레이 등이다.

운송업종이 선호업종에서 제외되었고 새롭게 선호업종에 추가된 업종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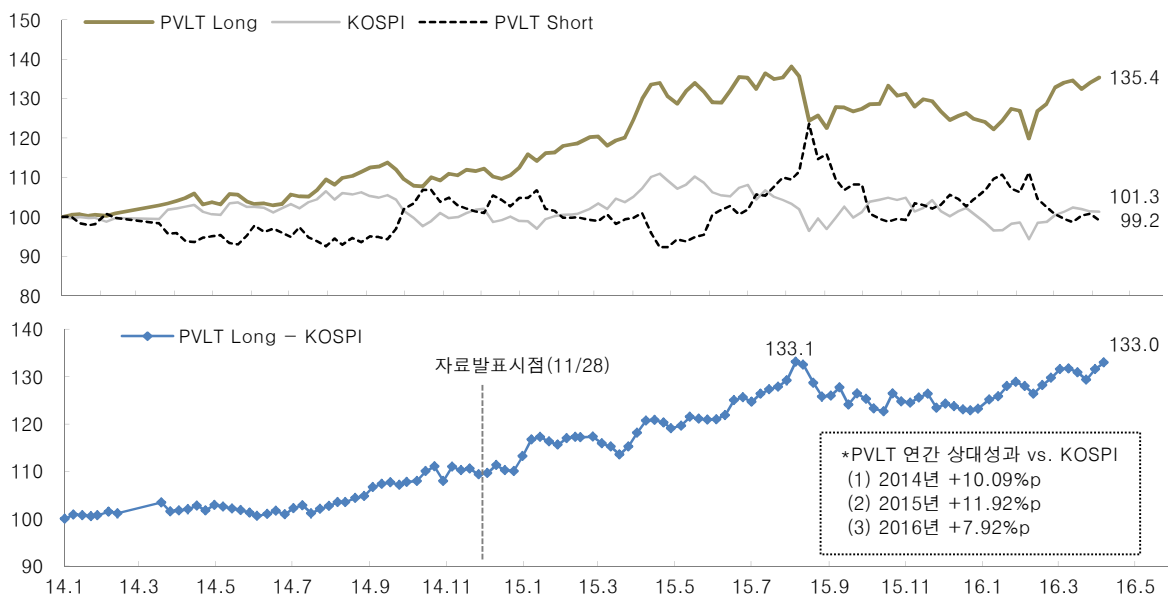
그림 1. PVLT 점수 = 주도력+이익+유동성+기술적분석

	3월 5주	4월 1주	4월 2주
선호업종	비철금속	에너지	에너지
	조선	화학	비철금속
	에너지	건설	철강
	화학	기계	기계
	철강	은행	화학
	건설	보험	건설
	디스플레이	비철금속 등	디스플레이등
PVLT 성과(%)	1.18	1.00	
KOSPI 성과(%)	-0.52	-0.08	
상대성과(%p)	1.70	1.08	

자료: W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주: 선호업종은 PVLT 점수 순서로 배열

지난주 PVLT 매수(8점이상)섹터가 KOSPI보다 1.08%p 초과 강세를 기록한 가운데 매도(2점이하)섹터는 KOSPI보다 1.74%p 상대적 강세였다. 최근 2주 KOSPI가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금주에는 선호업종내 모멘텀 점수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비철금속, 기계, 디스플레이 등에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그림 2. 2014년 이후 PVLT 성과 (1) Long : 8점 이상 (2) Short : 2점 이하



자료: W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주: PVLT Short 성과는 공매도시 성과임

PVLT는 변수 모멘텀에 따라 점수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8점 이상을 선호한다.

한 주간 철강, 비철금속, 화장품의류(+1점)등의 점수 상승이 높았다.

*자세한 내용은 2014년 11월 28일자 '주간 업종 선택 전략' 참조

그림 3. PVLT 변수별 현황 : 4월 8일 증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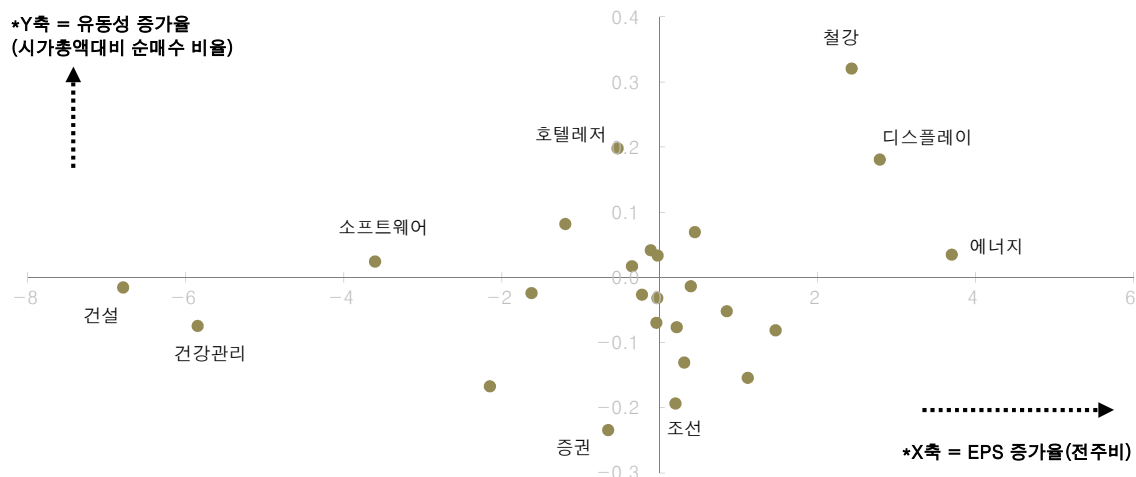
PVLT	Sector	전주비	SCORE			Valuation(3점)			Liquidity(3점)			Technical(2점)		Re.Price(2점)	
			04월 08일	04월 02일	03월 26일	EPS(12M fwd)		EPS Growth	순매수(기관+외국인)			이동평균선 방향		이동평균선 방향	
						4주 +	12주 +	12주 +	4주 +	12주 +	유입 강도	4주	12주	4주	12주
선호	에너지	0	9	9	9	○	○		○	○	○	○	○	○	○
	비철금속	1	9	8	10		○	○	○	○	○	○	○	○	○
	철강	1	9	8	9	○	○	○	○	○		○	○	○	○
	기계	0	9	9	7			○	○	○	○	○	○	○	○
	화학	-1	8	9	9	○	○		○	○		○	○	○	○
	건설	-1	8	9	8		○	○	○	○		○	○	○	○
	은행	-1	8	9	7	○	○	○		○		○	○	○	○
	보험	-1	8	9	6	○	○	○	○	○		○	○	○	○
	디스플레이	0	8	8	8	○			○	○	○	○	○	○	○
중립	운송	-1	7	8	6	○	○	○		○		○	○	○	
	반도체	0	7	7	5	○			○	○		○	○	○	○
	조선	-1	6	7	10	○	○	○		○			○		○
	화장품, 의류	1	6	5	5		○	○	○		○			○	
	유틸리티	0	5	5	6	○	○			○			○		○
	자동차	-3	4	7	5	○		○		○			○		
	필수소비재	1	4	3	1	○					○	○		○	
	건강관리	-1	4	5	6						○	○	○	○	
	IT하드웨어	-1	4	5	5			○				○	○	○	
	IT가전	0	4	4	6	○		○		○		○			
	미디어, 교육	-1	3	4	4	○	○	○							
	통신서비스	0	3	3	1				○	○			○		
비선호	호텔, 레저	1	2	1	3			○					○		
	소매(유통)	-1	2	3	6	○		○							○
	증권	-1	2	3	4								○		
	소프트웨어	-3	2	5	6				○	○					
	상사, 자본재	0	1	1	0	○									

자료: WISE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는 주간 업종 EPS(12M Fwd)와 유동성(기관+외국인) 증가율을 나타낸다.

한주간 에너지와 디스플레이의 이익추정치 증가율이 높았고 철강과 호텔레저는 유동성 보장이 컸다.

그림 4. 이익과 유동성으로 본 업종 모멘텀



자료: WISE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는 KOSPI100 PVLT 선호도 결과이다. 두산중공업, 한국전력, 코웨이, LG유플러스 등이 선호종목에 편입된 가운데 한국타이어, 롯데쇼핑,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엔씨소프트 등이 선호종목에서 제외되었다.

PVLT 주간점수 상승 폭이 컸던 종목은 코웨이, 한국전력, GKL 등이다.(그림 6)

그림 5. KOSPI 100 종목별 PVLТ 선호도 : 선호

PVLТ	업종 구분(중)	종목	전주비	SCORE			수익률(%)			Valuataion		
				04월 08일	04월 01일	03월 25일	주간	월간	YTD	12M fwd.		
										PER	PBR	ROE
선호	은행	KB금융	2	10	8	8	1.9	3.2	-1.2	7.3	0.4	5.8
	자본재	두산인프라코어	0	10	10	9	4.6	10.2	44.6	9.4	0.6	6.9
	식품, 음료, 담배	KT&G	1	10	9	4	3.6	9.5	10.5	16.1	2.0	14.3
	자본재	현대산업	1	10	9	9	0.2	10.4	19.1	11.0	1.2	12.1
	에너지	SK이노베이션	0	9	9	10	1.5	11.4	31.5	9.9	0.9	9.4
	에너지	GS	1	9	8	8	1.2	8.4	15.2	7.8	0.8	10.1
	자본재	포스코대우	1	9	8	8	8.2	8.2	41.9	11.5	0.9	8.3
	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0	9	9	9	4.0	10.9	11.6	37.9	0.8	2.0
	자본재	두산중공업	2	9	7	5	4.1	-0.7	5.3	16.8	0.6	4.1
	다각화된금융	삼성카드	1	9	8	6	-0.6	14.0	27.9	14.0	0.7	4.8
	내구소비재와의료	코웨이	3	9	6	7	-0.7	-1.5	11.3	19.1	4.8	27.6
	유틸리티	한국전력	3	9	6	7	-0.7	5.0	17.4	4.9	0.5	10.8
	에너지	S-Oil	0	9	9	10	-0.1	12.5	21.7	10.9	1.8	17.2
	자본재	LS산전	0	9	9	6	2.6	10.6	2.5	11.6	1.2	10.9
	자본재	LS	2	9	7	8	5.8	3.4	15.5	11.7	0.5	5.1
	소재	POSCO	1	9	8	8	8.9	4.7	39.6	14.2	0.4	3.2
	운송	대한항공	-1	9	10	10	0.0	6.7	12.3	9.0	1.0	10.9
	은행	하나금융지주	1	8	7	6	-3.8	4.5	-2.3	6.0	0.3	5.2
	유틸리티	한전기술	3	8	5	6	0.0	2.6	-10.3	24.2	2.5	11.0
	가정용품과개인용품	LG생활건강	2	8	6	6	4.9	23.1	-3.0	28.9	6.0	24.3
	소프트웨어와서비스	NAVER	0	8	8	8	5.6	9.8	0.8	28.0	5.7	26.6
	통신서비스	LG유플러스	1	8	7	6	-1.4	6.8	5.3	12.0	1.0	8.6
	통신서비스	KT	1	8	7	7	2.7	6.8	7.8	11.5	0.6	6.0
	소재	롯데케미칼	0	8	8	9	-2.1	4.1	35.1	9.0	1.3	15.2
	소재	OCI	-1	8	9	10	1.5	4.2	35.3	15.2	0.8	5.1
	반도체와반도체장비	삼성전자	0	8	8	7	-2.6	4.5	-1.1	11.2	1.0	10.3
	소재	효성	0	8	8	7	-2.9	1.5	14.0	8.5	1.2	15.7
	자본재	대림산업	0	8	8	9	0.8	-0.8	31.5	9.7	0.7	7.5
	은행	우리은행	0	8	8	8	-1.8	-0.5	4.9	5.8	0.3	5.5

자료: WISEN, 대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KOSPI 100 종목별 PVLТ 선호도 : 전주비 상승 종목 (3 점 이상)

PVLТ	업종 구분(중)	종목	전주비	SCORE			수익률(%)			Valuataion		
				04월 08일	04월 01일	03월 25일	주간	월간	YTD	12M fwd.		
										PER	PBR	ROE
선호	내구소비재와의료	코웨이	3	9	6	7	-0.74	-1.47	11.30	19.07	4.77	27.64
	유틸리티	한국전력	3	9	6	7	-0.68	5.01	17.40	4.89	0.51	10.82
	유틸리티	한전기술	3	8	5	6	0.00	2.64	-10.26	24.19	2.54	10.98
중립	호텔, 레스토랑, 레저등	GKL	4	5	1	0	20.50	9.18	10.54	12.59	2.59	21.67

자료: WISEN, 대산증권 리서치센터

KOSPI100내 PVLТ기준 비선호 종목은 (그림 7)과 같다.

그림 7. KOSPI 100 종목별 PVLТ 선호도 : 비선호

PVLТ	업종 구분(중)	종목	전주비	SCORE			수익률(%)			Valuataion		
				04월 08일	04월 01일	03월 25일	주간	월간	YTD	PER	PBR	ROE
비선호	운송	현대글로벌비스	-2	2	4	3	0.5	-2.9	-3.1	12.5	1.9	16.1
	자본재	삼성물산	0	2	2	2	-1.1	-7.7	-1.1	55.1	1.4	2.9
	증권	삼성증권	0	2	2	4	-2.6	-9.0	-8.4	12.0	0.7	6.8
	소재	한화케미칼	0	2	2	2	-4.6	-6.5	-15.4	9.8	0.8	8.3
	자본재	KCC	-1	2	3	3	-2.0	-5.9	-4.8	15.5	0.6	4.5
	유틸리티	한전KPS	-1	1	2	1	4.6	-9.8	-25.3	15.9	3.2	20.9
	자본재	한국항공우주	0	1	1	2	0.3	-10.3	-16.1	23.1	4.2	19.8
	미디어	제일기획	-1	1	2	3	-3.3	-5.5	-20.8	17.1	1.8	12.8
	자동차와부품	현대위아	-1	1	2	2	-2.9	-12.7	-10.7	6.5	0.7	12.2
	호텔,레스토랑,레저	호텔신라	0	1	1	4	5.8	-7.4	-10.7	20.5	2.8	15.1
	증권	대우증권	-2	1	3	3	-3.9	-10.7	-18.2	10.0	0.6	6.1
	식품,음료,담배	롯데칠성	0	1	1	1	8.3	-6.2	-11.5	25.2	1.0	4.0
	소매(유통)	신세계	1	1	0	1	-0.5	-12.4	-12.2	10.6	0.6	6.0
	식품,음료,담배	오리온	-1	1	2	1	1.3	2.4	-20.2	22.8	2.9	15.4
	반도체와반도체장비	SK하이닉스	1	1	0	0	-1.4	-8.9	-9.6	9.2	0.8	9.7
	자동차와부품	기아차	-4	1	5	4	-3.5	-3.9	-13.7	6.5	0.7	11.1
	운송	CJ대한통운	0	1	1	3	3.2	-0.3	1.1	34.4	1.3	5.1
	식품,음료,담배	CJ제일제당	0	0	0	3	3.5	-2.3	-5.3	14.7	1.4	10.0
	증권	한국금융지주	-1	0	1	2	-4.2	-5.8	-14.4	8.9	0.7	8.9
	통신서비스	SK텔레콤	-1	0	1	1	-3.6	-4.5	-6.0	11.0	0.9	9.7
	기술하드웨어와장비	LG이노텍	0	0	0	0	0.4	-9.3	-20.3	12.5	0.9	7.8
	기술하드웨어와장비	삼성전기	-4	0	4	3	-2.5	-1.6	-12.9	18.3	0.9	5.4
	소재	한화	-3	0	3	6	-1.4	-4.0	-12.3	9.5	0.5	6.2
	보험	삼성화재	0	0	0	3	-1.2	-8.5	-6.7	16.0	1.1	8.6

자료: Wsati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Today's Data Snapshot

<Monday> Global Fund Flow

[월요일] Global Fund Flow

Analyst 김영일 ampm01@daishin.com

신흥국 주식자금 2주연속 순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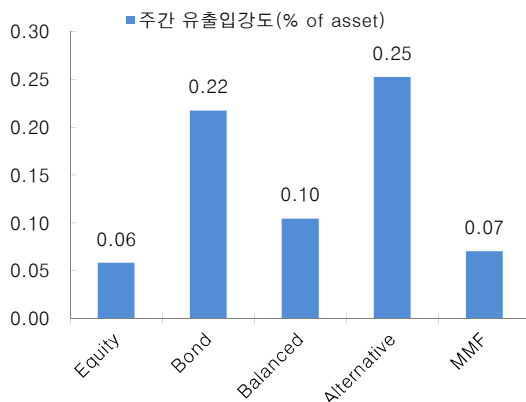
1. MMF 25.9억달러 순유입 : EPFR에 따르면 지난주(3/31~4/6) MMF로 6주 만에 25.9억달러 순유입. 주식, 채권, MMF 등 모든 자산으로 자금 유입
2. Equity 43.2억달러 순유입 : 선진지역(+49.3억달러), 신흥지역(-6.0억달러). ETF 중심으로 서유럽(-6.9억달러)과 퍼시픽(-9.2억달러)에서 순유출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 북미(+43.2억달러)로는 ETF 자금 대규모 유입. GEM(+0.05억달러)은 6주 연속 순유입을 지속하고 있지만 유입강도는 점차 둔화
3. Bond 79.9억달러 순유입 : 선진지역(+60.1억달러), 신흥지역(+19.8억달러), 북미(+25.5억달러), 서유럽(+24.1억달러), GEM(+16.7억달러)으로 자금 유입. 특히, 서유럽과 GEM으로 연초 이후 유입 강도가 가장 컸으며 신흥지역 연초 이후 누적 자금 흐름은 순유입으로 전환

표 1. 자산별 자금 유출입 (W:3월31일~4월6일)

Asset	Net Flows(\$mil)				% of asset			2016년	
	W-3	W-2	W-1	W	1개월	3개월	최근1년	Net Flow	% of asset
Equity	4307.2	-1090.3	-2575.7	4323.7	0.07	-0.36	-0.33	-46052.9	-0.67
Bond	7667.6	5875.5	-361.1	7993.3	0.58	0.84	-0.56	35680.4	0.99
Balanced	863.3	1335.1	104.8	872.1	0.38	-0.86	-1.02	-10896.9	-1.42
Alternative	734.4	1902.1	998.5	336.0	3.04	4.98	1.82	5511.4	4.28
MMF	-39425.4	-29433.3	-13600.6	2594.4	-2.15	-1.62	2.03	-44071.7	-1.20
(All Assets)	-25852.9	-21410.9	-15434.2	16119.5	-0.30	-0.37	0.15	-59829.7	-0.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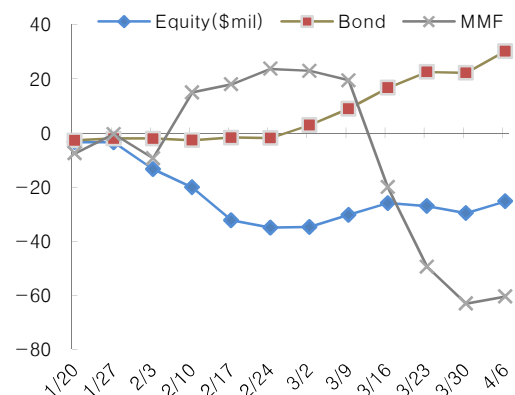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 자산별 주간 유출입 강도(% of asset)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최근 12주 자산별 펀드 플로우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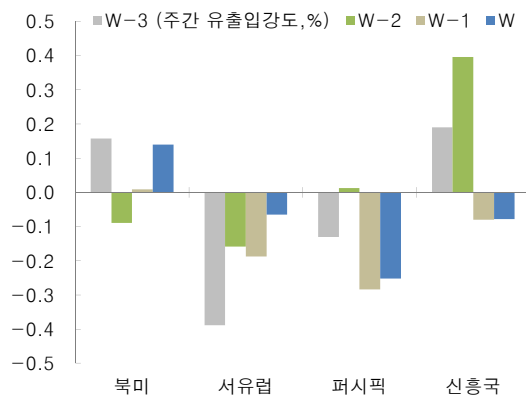
1. Equity

표 2. Equity Fund Flow

Region	Net Flows(\$mil)				% of asset			2016년	
	W-3	W-2	W-1	W	1개월	3개월	최근1년	Net Flow	% of asset
Global	1592.5	931.5	684.7	1211.6	0.30	0.63	3.06	10693.1	0.75
North America	5758.8	-3325.8	358.8	5329.2	0.21	-0.53	-3.04	-42419.5	-1.21
Western Europe	-3950.1	-1629.9	-1971.5	-691.0	-0.79	-1.64	4.83	-15591.3	-1.53
Asia Pacific	-466.0	47.2	-1039.4	-923.1	-0.67	0.61	14.21	4958.3	1.44
(All Developed)	2935.2	-3977.0	-1967.5	4926.8	0.03	-0.39	0.43	-42359.3	-0.68
GEM	1428.2	2103.4	417.2	4.9	1.05	0.23	-5.71	86.8	-0.19
Asia Ex-Japan	-340.5	455.4	-1148.1	-970.3	-0.62	-1.55	-10.29	-5150.4	-1.66
Latin America	312.5	169.0	104.5	283.9	4.36	7.56	-7.09	1238.7	6.42
EMEA	-28.2	159.0	18.2	78.4	0.69	0.60	-5.71	131.3	0.29
(All Emerging)	1372.0	2886.7	-608.3	-603.1	0.41	-0.32	-7.70	-3693.6	-0.61
*All Equity	4307.2	-1090.3	-2575.7	4323.7	0.07	-0.38	-0.42	-46052.9	-0.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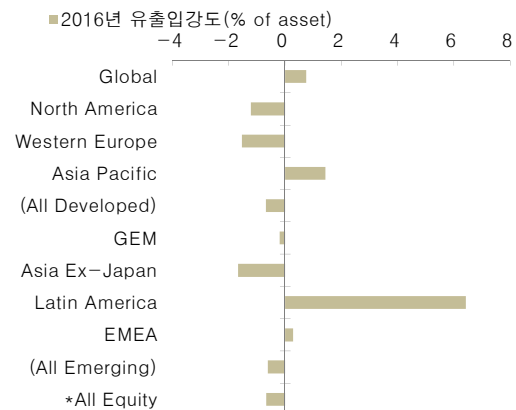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최근 4주 지역별 주식형펀드 유출입 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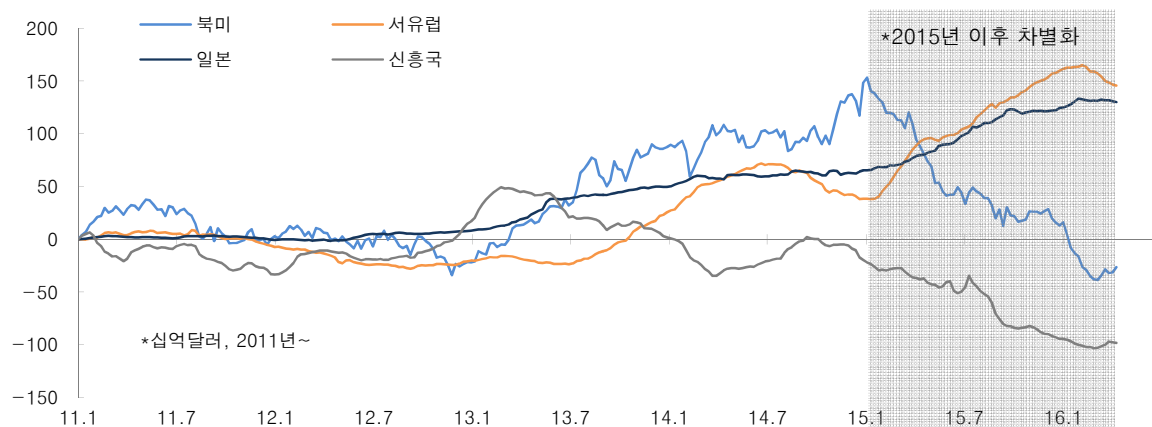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2016년 지역별 주식형펀드 유출입 강도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주요국 주식 펀드플로우 추이 (2011년~)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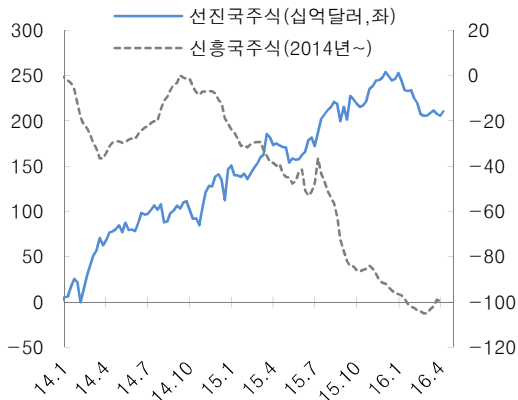
2. Bond

표 3. Bond Fund Flow

Region	Net Flows(\$mil)				% of asset			2016년	
	W-3	W-2	W-1	W	1개월	3개월	최근1년	Net Flow	% of asset
Global	2203.7	780.7	-624.1	1092.0	0.53	-1.20	-5.01	-8934.0	-1.39
North America	3112.0	1945.3	-7.6	2552.3	0.37	1.87	2.68	44512.6	2.19
Western Europe	1684.9	1783.2	-25.4	2411.5	0.95	-0.02	-2.63	614.5	0.06
Asia Pacific	-97.3	-39.2	-83.1	-41.5	-0.61	-3.09	-1.13	-1256.1	-2.98
(All Developed)	6903.2	4470.0	-740.2	6014.3	0.49	0.87	0.15	34937.1	1.05
GEM	649.3	1494.3	592.8	1667.6	2.53	0.62	-13.77	106.4	-0.24
Asia Ex-Japan	208.1	10.9	-231.2	259.4	0.38	-0.05	8.04	862.8	1.36
Latin America	-90.3	-101.8	32.3	72.1	-0.67	-3.49	-27.89	-57.5	-0.53
EMEA	-2.8	2.0	-14.8	-20.2	-0.41	-2.22	-11.51	-168.4	-1.99
(All Emerging)	764.4	1405.4	379.2	1979.0	1.74	0.17	-10.04	743.3	0.12
*All Bond	7667.6	5875.5	-361.1	7993.3	0.58	0.83	-0.57	35680.4	0.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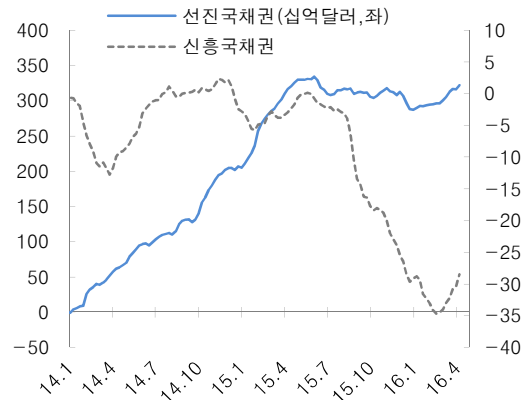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주식형펀드 : 선진국 vs. 신흥국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채권형펀드 : 선진국 vs. 신흥국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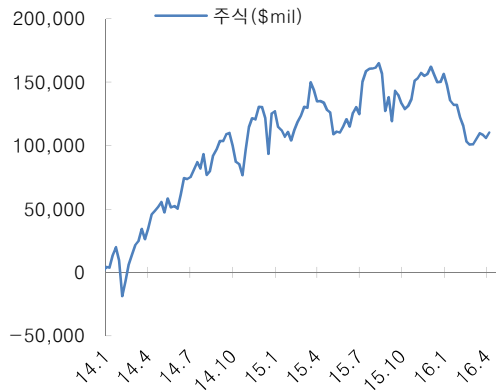
3. Equity_only ETF

표 4. Equity(only ETF) Fund Flow

Region	Net Flows(\$mil)				% of asset			2016년	
	W-3	W-2	W-1	W	1개월	3개월	최근1년	Net Flow	% of asset
Global	993.0	61.8	671.4	427.1	0.78	1.24	15.59	4750.5	1.77
North America	7609.8	-501.0	1960.3	7357.1	1.22	0.96	5.33	-1218.4	-0.19
Western Europe	-3087.8	-819.9	-1176.1	-931.6	-2.54	-4.69	9.29	-10369.3	-4.43
Asia Pacific	-222.8	472.0	-857.8	-967.5	-0.81	1.41	20.22	4800.6	2.46
(All Developed)	5292.1	-787.1	597.8	5885.1	0.54	0.40	8.68	-2036.6	-0.13
GEM	1492.8	2418.4	684.5	806.0	5.72	5.20	1.58	4674.9	4.46
Asia Ex-Japan	183.4	845.0	-906.5	-196.9	-0.06	1.57	-3.47	2401.1	2.23
Latin America	241.8	119.9	79.0	227.1	5.27	11.14	3.55	1254.0	10.77
EMEA	7.5	112.8	34.5	73.9	1.58	2.48	-1.61	323.4	2.23
(All Emerging)	1925.5	3496.1	-108.5	910.1	2.59	3.62	-0.80	8653.4	3.65
*All ETF	7217.6	2709.0	489.3	6795.2	0.75	0.73	7.60	6616.8	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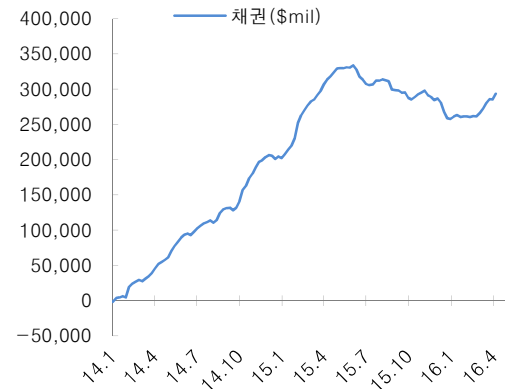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전체 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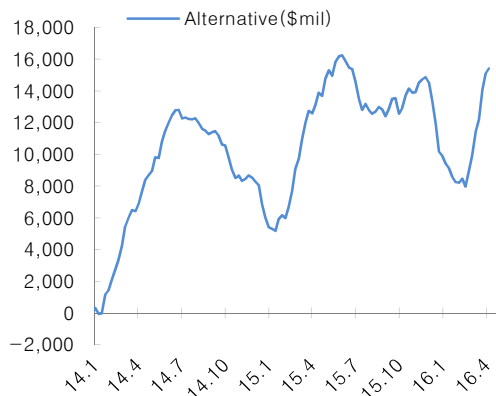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전체 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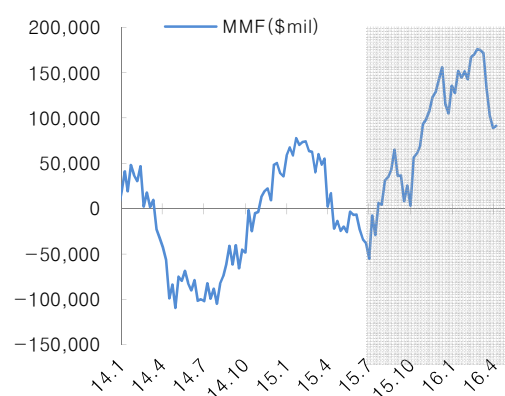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대체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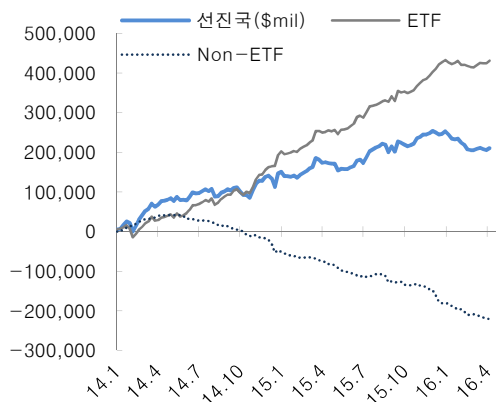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1. M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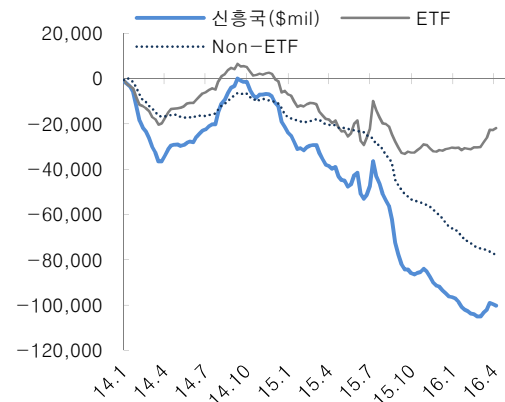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2. 선진국주식: ETF vs. Non-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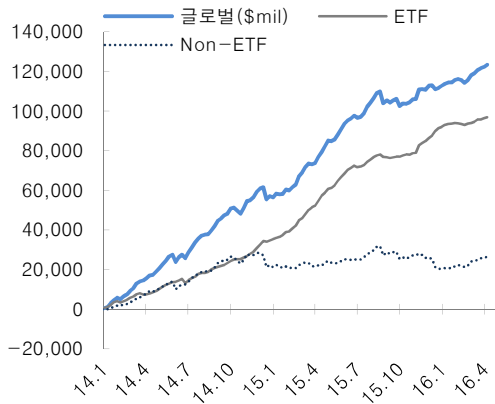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3. 신흥국주식: ETF vs. Non-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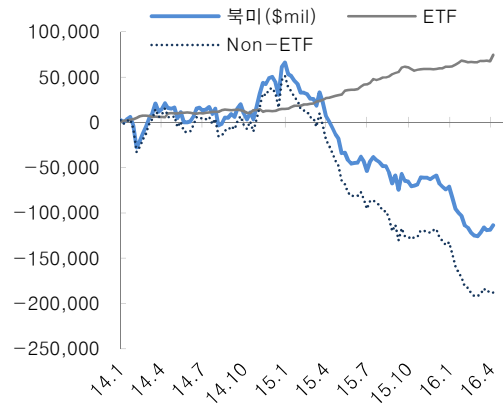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4. 글로벌주식: ETF vs. Non-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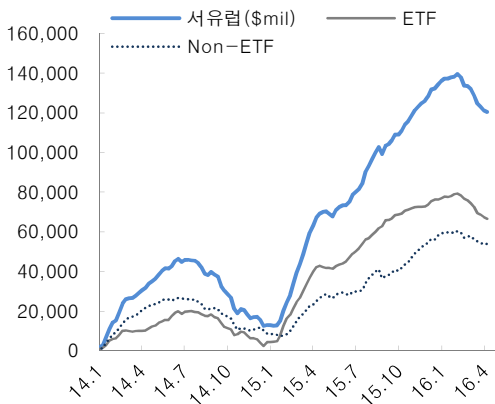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5. 북미주식: ETF vs. Non-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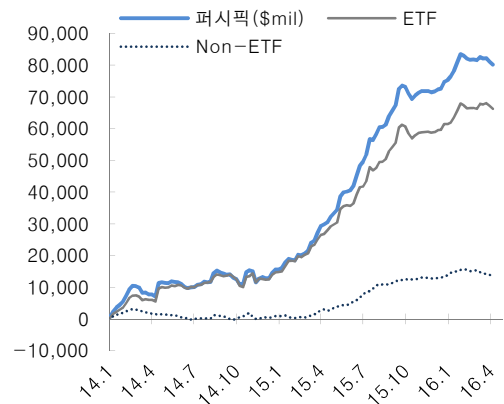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6. 서유럽주식: ETF vs. Non-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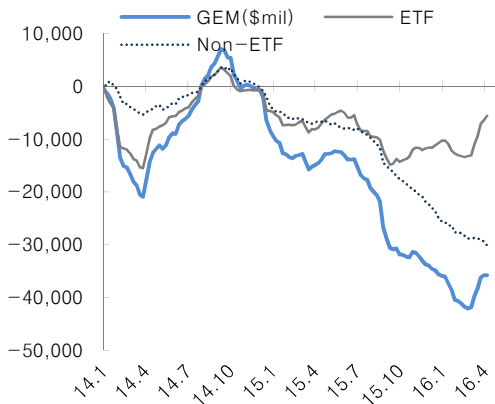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7. 퍼시픽주식: ETF vs. Non-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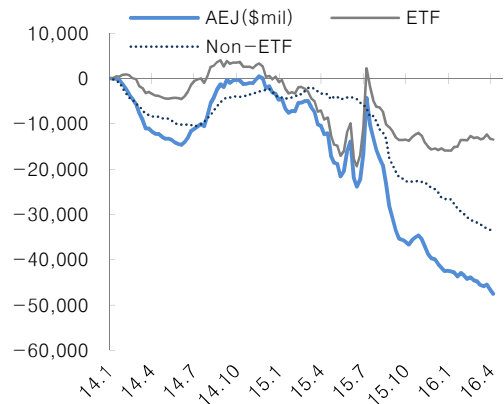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8. GEM 주식: ETF vs. Non-ETF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9. AEJ 주식: ETF vs. Non-ETF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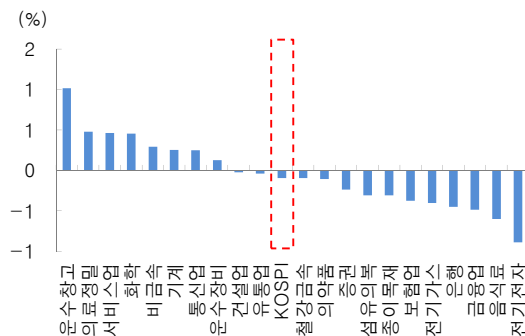
Chart Alarm

01. 주가 등락률

- 8일 KOSPI는 기관의 매도세에 0.09% 하락한 1,972.05에 거래 마감
- 기관은 2,800억원 순매도한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486억원, 1,653억원 매수 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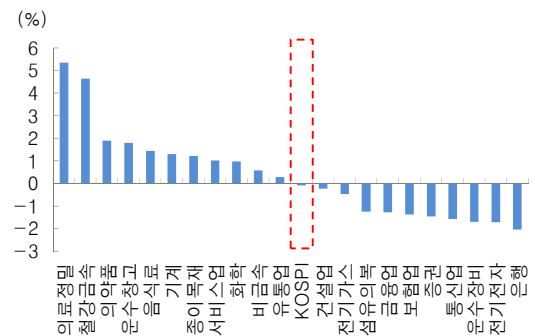
▶ 국내증시

전일 업종지수 수익률



자료: Bloomberg

최근 5일간 업종지수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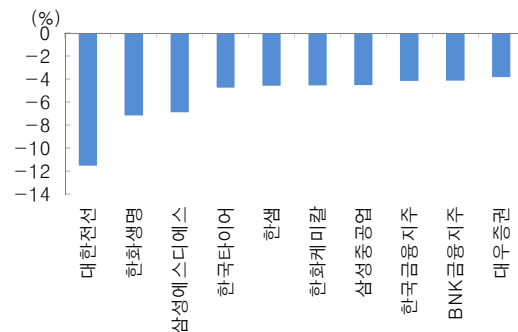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최근 5일간 대형주 상승률 상위 10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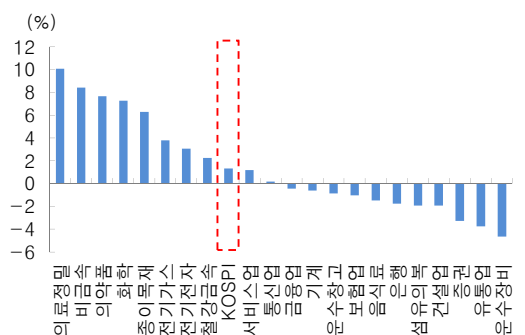
주: 대형주는 KOSPI 시총 상위 100종목임
자료: Bloomberg

최근 5일간 대형주 하락률 상위 10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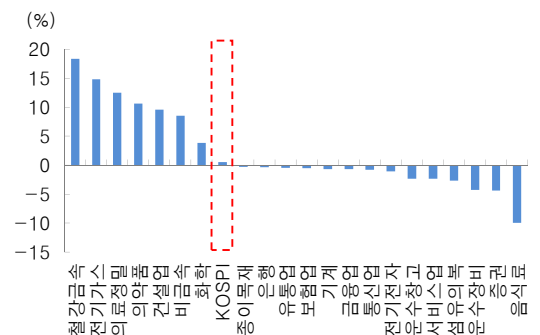
주: 대형주는 KOSPI 시총 상위 100종목임
자료: Bloomberg

최근 1개월 업종 수익률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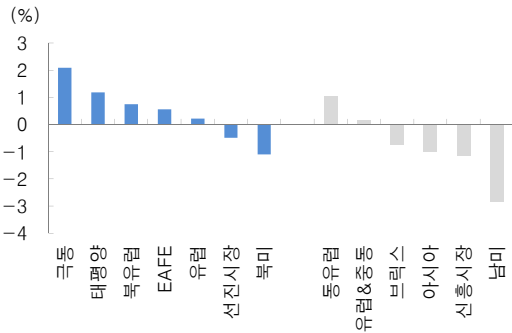
연간 업종 수익률



자료: Bloomberg

▶ 해외 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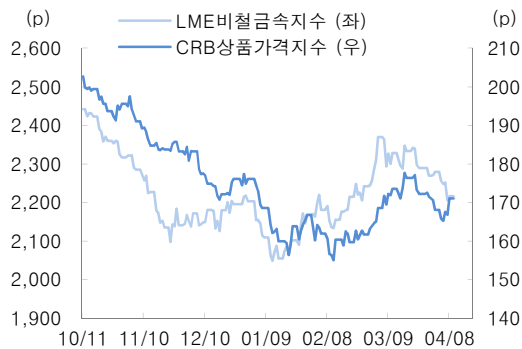
최근 5일간 MSCI 지역지수 등락률



02. 상품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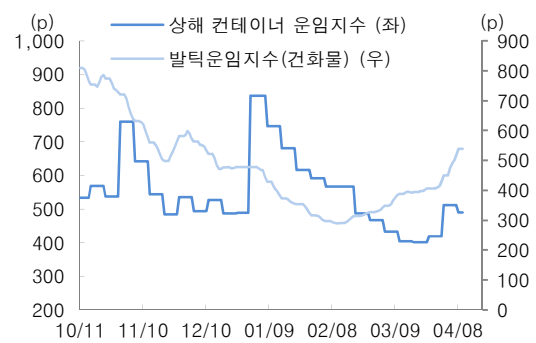
-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5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전일대비 6.6% 급등한 39.72달러에 거래를 마감
- 금값은 6월 인도분이 전일 증가보다 0.5% 오른 온스당 1243.80달러에 거래를 마침

CRB상품 가격과 LME 비철금속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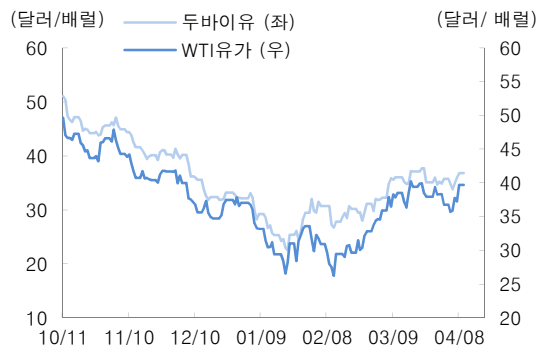
주: LME비철금속지수는 알루미늄, 전기동, 납, 니켈, 주석, 아연의 현물시세
자료: Bloomberg

상해 컨테이너 운임지수, 발틱 운임 지수(B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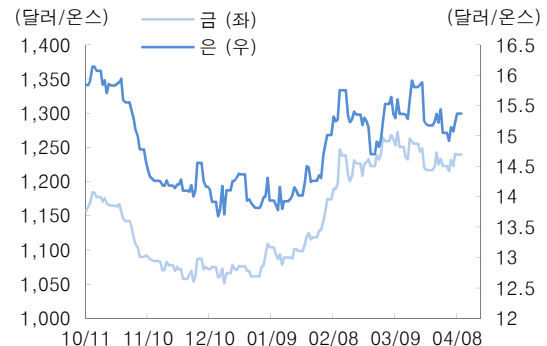
주: 케이프사이즈는 15만DWT 이상 최대 용량의 벌크선임
자료: Bloomberg

국제유가(WTI, 두바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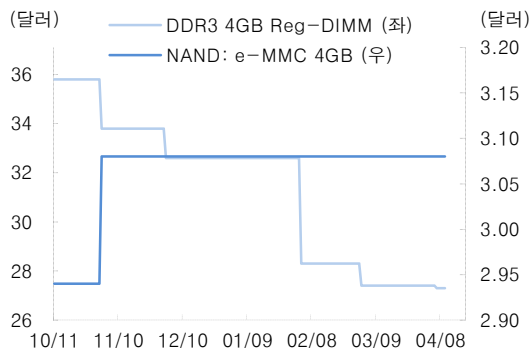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금, 은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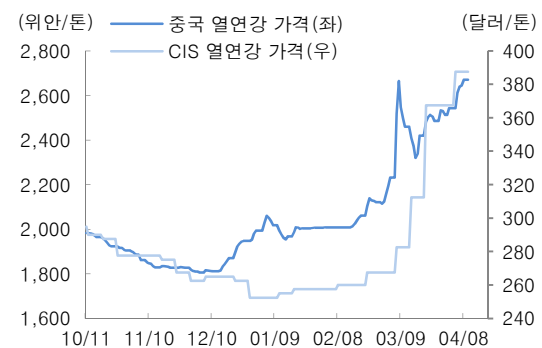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RAM과 NAND 현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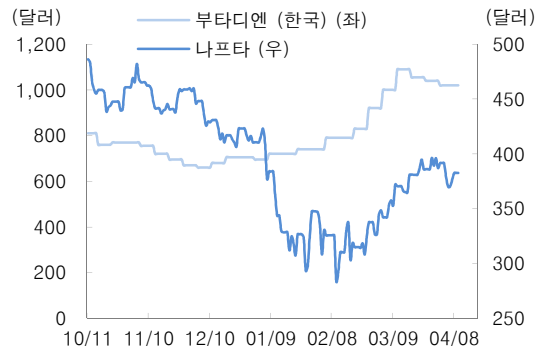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철강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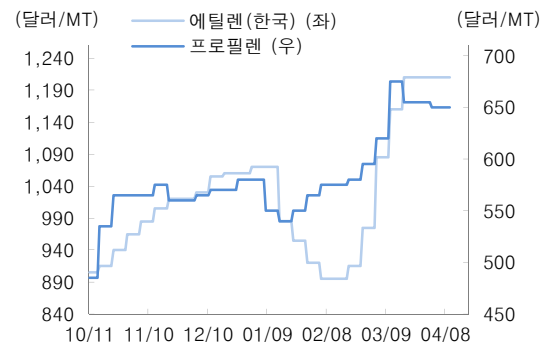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나프타, 부타디엔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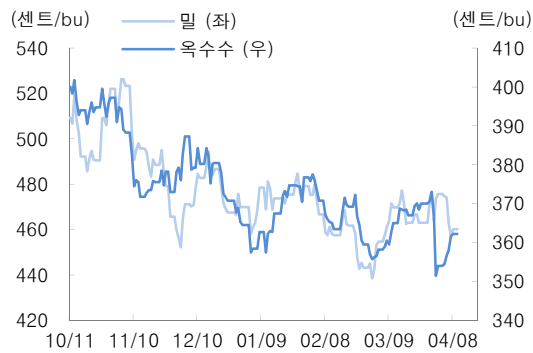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에틸렌, 프로필렌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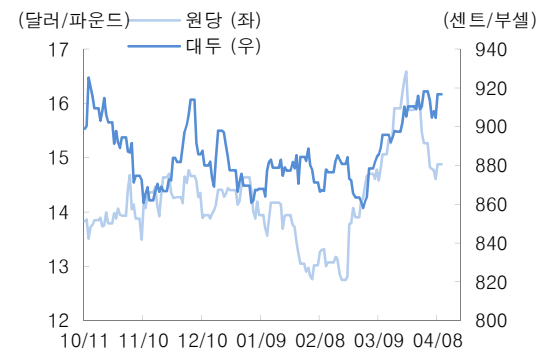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밀, 옥수수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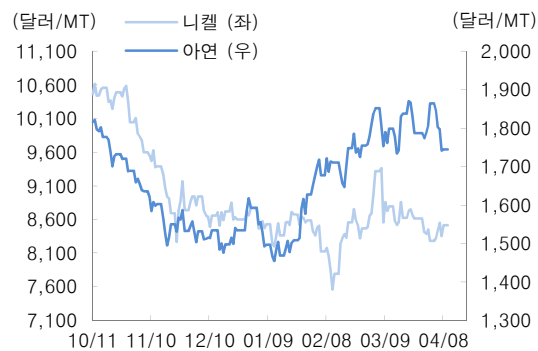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원당, 대두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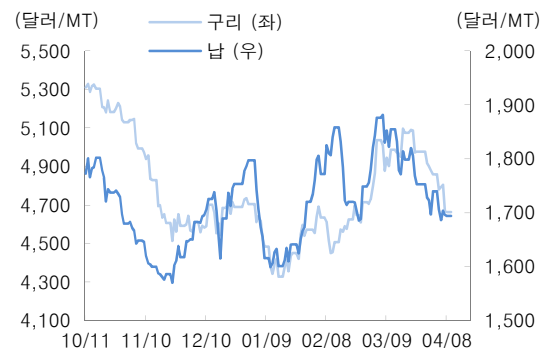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니켈, 아연 가격



자료: Bloomberg

구리, 납 가격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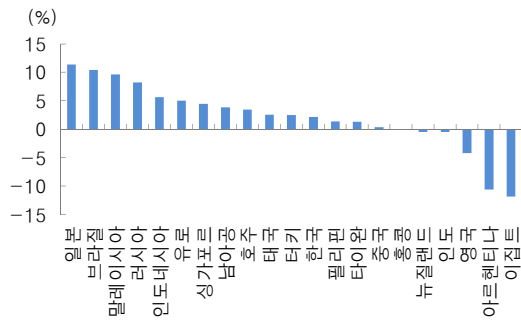
03. 금융지표

환율/금리/리스크 지표

-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40원 오른 1153.80원에 장을 마감
- 8일 지표물인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0.5bp 내린 1.463%에 거래를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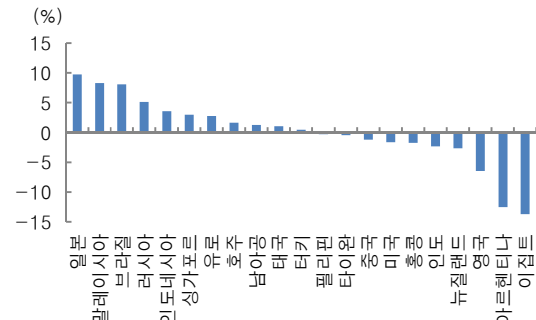
▶ 환율

주요국 기준환율의 2016년 절상률 (달러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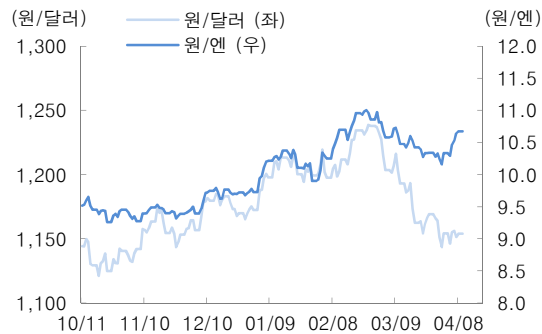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주요국 기준환율의 2016년 절상률 (원화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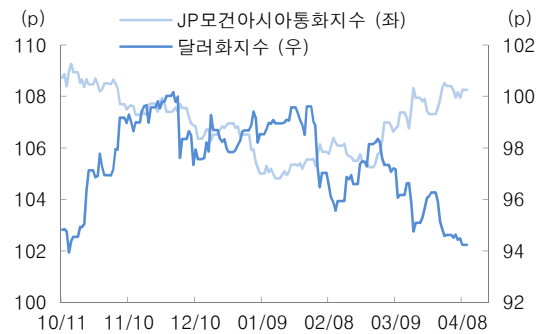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원/달러, 원/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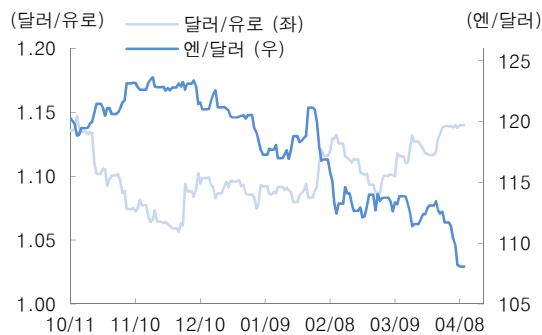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달러화 지수와 JP모건 아시아 통화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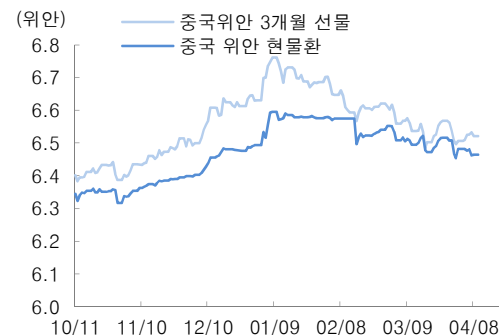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달러/유로, 엔/달러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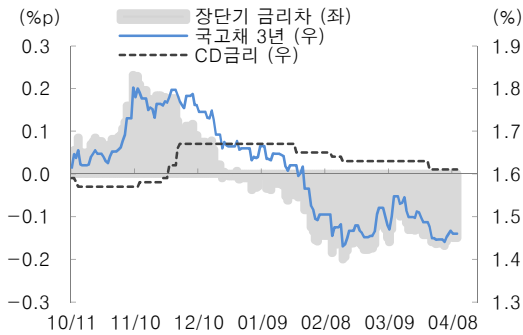
중국 위안화 현선물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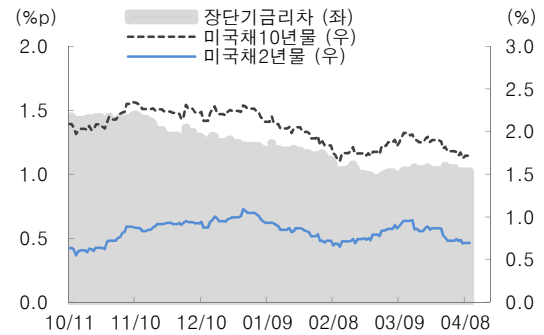
▶ 금리, 리스크 지표

국고채3년, CD금리와 장단기 금리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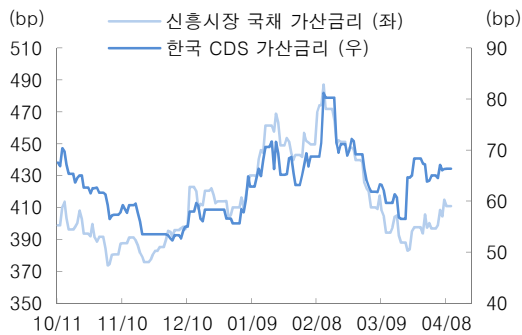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국 국채 10년물, 2년물과 장단기 금리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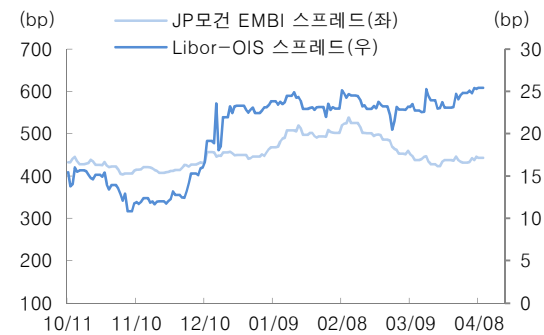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용시장 국채 가산금리와 한국 CDS 가산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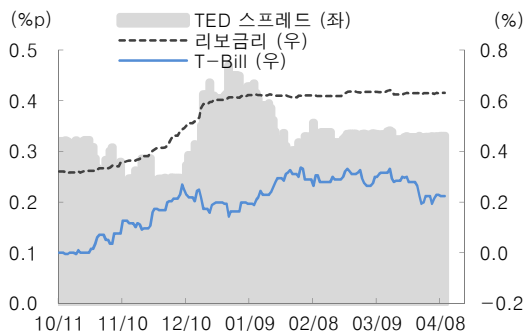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JP모건 EMBI 스프레드, Libor-OIS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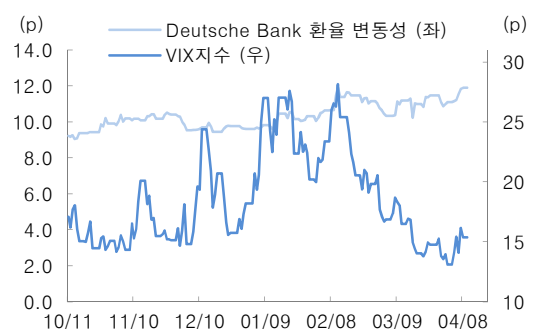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TED 스프레드



자료: Bloomberg

Deutsche Bank 환율 변동성과 VIX 지수



자료: Bloomberg

매매 및 자금 동향

▶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유가증권시장 : 순매수 금액)(단위: 십억원)

구분	4/08	4/07	4/06	4/05	4/04	04월 누적	16년 누적
개인	48.6	29.8	119.6	194.4	61.5	739	-1,311
외국인	165.1	225.9	117.2	-192.6	57.4	162	880
기관계	-280.0	-318.5	-299.4	-73.3	-193.1	-1,211	460
금융투자	-248.7	-159.8	-258.6	-44.0	-232.6	-767	-65
보험	8.5	11.0	12.6	-9.7	-4.7	-29	2,555
투신	14.3	-51.5	-61.8	-24.6	4.6	-217	-882
은행	-7.6	-20.8	-2.8	-5.1	-5.3	-42	-259
기타금융	-2.9	5.6	-5.1	-0.6	-5.9	-13	-91
연기금	-23.7	-78.7	12.3	39.3	39.2	-5	351
사모펀드	-21.2	-31.8	-0.3	-22.3	13.1	-138	-1,082
국가·지자체	1.3	7.5	4.3	-6.3	-1.5	-1	-68

자료: Bloomberg

▶ 종목 매매동향

유가증권시장(단위: 십억원)

외국인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아모레퍼시픽	20.6	현대모비스	8.7
LG 생활건강	13.2	현대중공업	8.4
NAVER	12.9	기아차	7.1
SK 하이닉스	12.4	현대차	6.4
삼성 SDI	12.0	롯데케미칼	5.8
한국전력	11.7	삼성엔지니어링	5.3
LG 화학	11.3	POSCO	5.2
KT&G	10.2	한국타이어	5.1
삼성전자	9.1	한샘	4.9
효성	8.9	유한양행	3.8

자료: KOSCOM

기관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현대중공업	18.8	삼성전자	99.0
LG 디스플레이	11.3	NAVER	13.4
동양	8.7	한국전력	12.3
KT	7.9	LG 화학	11.8
유한양행	6.0	삼성전자우	11.5
삼성에스디에스	5.6	삼성물산	10.5
만도	5.5	SK 텔레콤	10.4
POSCO	4.8	신한지주	10.2
아모레 G	4.5	효성	9.4
GKL	4.4	한샘	9.3

코스닥시장(단위: 십억원)

외국인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휴젤	7.9	SK 머티리얼즈	2.9
셀트리온	3.2	CJ E&M	2.3
파트론	2.9	카카오	2.3
웹젠	2.3	뉴트리바이오텍	2.1
NEW	2.2	인바디	2.1
코오롱생명과학	2.2	포비스티앤씨	2.0
아프리카 TV	1.9	성광벤드	1.8
엠젠플러스	1.8	오스템임플란트	1.8
뷰웍스	1.7	인트론바이오	1.8
로엔	1.3	에스에프에이	1.7

자료: KOSCOM

기관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KH 바텍	4.3	컴투스	8.5
인트론바이오	3.5	휴젤	7.9
SK 머티리얼즈	3.4	셀트리온	7.7
제넥신	3.1	큐리언트	2.3
삼천리자전거	3.1	NEW	1.9
팅크웨어	2.5	케어젠	1.9
동서	1.5	웹젠	1.4
에스티아이	1.5	엠지메드	1.3
뉴트리바이오텍	1.4	와이솔	1.3
연우	1.3	CJ E&M	1.2

▶ 최근 5일 외국인 및 기관 순매수, 순매도 상위 종목

외국인 (단위: %, 십억원)					
순매수	금액	수익률	순매도	금액	수익률
NAVER	97.2	1.8	삼성전자우	76.2	-4.4
POSCO	68.4	6.2	기아차	34.9	-0.9
신한지주	38.6	-0.8	삼성물산	19.0	-0.7
SK 이노베이션	32.3	4.9	유한양행	17.1	4.8
아모레퍼시픽	31.5	-0.1	삼성엔지니어링	16.4	6.3
SK 하이닉스	29.2	-0.4	CJ	16.0	5.5
한국전력	26.1	-0.3	현대중공업	15.8	5.4
삼성 SDI	23.1	0.4	KB 금융	13.1	1.9
LG 생활건강	21.9	1.1	한국타이어	12.7	-4.9
이노션	20.5	-1.1	동아에스티	12.3	6.9

자료: KOSCOM

기관 (단위: %, 십억원)					
순매수	금액	수익률	순매도	금액	수익률
KB 금융	33.5	1.9	삼성전자	381.5	-4.5
동양	31.5	-1.4	SK 하이닉스	116.1	-0.4
LG 디스플레이	31.5	3.8	삼성물산	71.2	-0.7
KT	31.1	2.5	현대차	64.9	1.4
BGF 리테일	27.3	2.4	신한지주	57.2	-0.8
POSCO	27.1	6.2	SK 텔레콤	47.8	-1.7
GKL	27.0	20.8	기아차	45.6	-0.9
유한양행	23.2	4.8	한국전력	41.9	-0.3
삼성엔지니어링	15.0	6.3	한미약품	40.9	-5.0
OCI	14.2	0.5	NAVER	39.1	1.8

자료: KOSCOM

▶ 아시아증시의 외국인 순매수 (단위: 백만달러)

구분	4/08	4/07	4/06	4/05	4/04	04월 누적	16년 누적
한국	155.7	241.6	81.9	-191.2	55.5	217	975
대만	21.4	-182.5	-208.4	--	--	-498	4,483
인도	--	--	-77.3	-140.3	61.2	-156	1,057
태국	-51.1	-80.8	0.0	-49.3	-26.3	-93	450
인도네시아	-3.6	51.6	0.8	27.4	21.5	98	413
필리핀	-2.8	-8.6	-12.2	-8.8	-2.8	-33	43
베트남	-7.4	4.9	-19.9	-27.4	1.7	-47	-94

주: 대만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현황은 TWSE(Taiwan Stock Exchange) + GTSM(Gre Tai Securities Market)의 합산 데이터임. GTSM은 우리나라의 코스닥에 해당되는 General Board와 프리보드 역할을 하는 이머징스탁 마켓 등으로 구분. 이머징스탁 마켓은 General Board로 건너가기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

자료: Bloomberg, 각국 증권거래소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